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제7차 신학포럼

발표 : 신찬송 박사 · 윤연준 박사

- ❖ 일시 : 2021년 2월 8일(월)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 ❖ 장소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본관4층 설교센터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KOREAN SOCIETY OF EVANGELICAL PRACTICAL THEOLOGY

목 차

·알리는 말씀 -----	5
·발표1: "그리스도 구원사건의 효과적 구현을 위한 어린이 예배 연구" 발표/ 신찬송 박사 -----	7
·발표2: "한국강단 회복을 위한 강해설교의 모델 - Timothy J. Keller의 설교" 발표/ 윤연준 박사 -----	30

• 알리는 말씀

1.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제7차 신학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발표와 진행의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포럼이 끝난 후 중식이 제공되오니,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 본 학회는 연 4회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복음과 실천신학」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실천신학」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한복실 홈페이지(<http://kept1997.kr>)에서 논문검색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 온라인을 통한 논문 검색과 논문 투고,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제40회 정기학술대회가 2021년 5월 15일(토) 총신대 사당캠퍼스(총장: 이재서)에서 “미디어 예배와 신학적 성찰 II”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발표 1]

"그리스도 구원사건의 효과적 구현을 위한 어린이 예배 연구"



신찬송 (백석대학전문대학원/ Ph. D.)

I. 들어가는 글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급속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다. 미국의 경제 예측 전문가인 해리 덴트(Harry Dent)의 저서인 『2018 인구절벽이 온다』는 인구 감소로 인한 세계 경제의 위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¹⁾ 덴트는 전 세계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저출산으로 생산가능 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것을 ‘인구절벽’이라고 지칭한다. 그는 한국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한국의 소비 흐름은 2015년에서 2020년까지는 계속 성장하겠지만 2020년 이후에는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이 앞서 보여 준 것처럼 경제의 급격한 하강 현상이 올 것이다.”²⁾

사람이 사라지는 인구절벽 현상은 소비, 노동, 투자 등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현재 한국교회 안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 기독교 인구는 1985년에 16%에서 1995년에 19.17%로 성장을 했다가 2005년에 18.7%로 감소하기 시작했다.³⁾ 한국교회 인구감소율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연령대는 주일학교 어린이이다.

미래학자 최윤식의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에 따르면 1960년대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한 주일학교는 대략 1980년대까지 성숙기를 맞이했다.⁴⁾ 그러나 1980년대부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시작되었지만, 교회 인원은 계속해서 증가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출산율 저하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⁵⁾

2016년 통계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교회 안에서 어린이들의 감소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사이에 16만8,356명이 줄었다.⁶⁾

1) Harry Dent, 『2018 인구절벽이 온다』, 권성희 역 (서울: 청림출판사, 2015).

2) Dent, 『2018 인구절벽이 온다』, 6-9.

3) 최윤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41.

4) 최윤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43.

5) 최윤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43.

성인과 어린이의 감소율을 비교할 때도 어린이들의 감소가 더욱 심각한 것은 앞으로 한국교회 미래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교회 어린이 감소의 첫 번째 원인은 이미 언급한 저출산으로 인한 것이다.

또 다른 외부적인 원인은 기독교 세계관을 위협하는 다원주의⁷⁾, 다문화주의, 세속주의, 편리주의 등이다. 예배학자 김상구는 “어린이 예배 갱신에 관한 소고”에서 저출산에 의한 인구학적 측면 외에도, 산업 발달에 의한 여가 문화 확산, 입시 위주의 사교육 등 외부적인 요인을 들고 있다.⁸⁾ 논자가 추가로 언급하고 싶은 외부적인 원인은 주 5일 근무와 수업, 학부모와 어린이들의 우선순위 변화, 즉 신본주의보다는 인본주의에, 신앙적 발달보다는 성장, 심리적 발달에 우선순위를 두게 된 변화이다.⁹⁾

그러나 본 논문은 주일학교 침체와 감소는 외부적 요소보다는 내부적 요인 더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본다. 어린이들이 드리는 어린이 예배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성장이 멈추어 있는 한국교회,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는 한국교회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대안을 교회 주일학교 즉, 어린이 예배에서 찾고자 한다.

한국교회의 침체 극복과 어린이 예배 활성화를 위한 많은 연구들이 신앙교육, 프로그램, 흥미 등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예배학 관점에서 어린이 예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문제점 해결을 위해 어린이 예배 가운데 기독교 예배의 본질인 그리스도 구원사건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한국교회 어린이 예배의 문제점

6) 이수진, “크리스찬 웹진 소리”, 기독교공보.

<http://www.cry.or.kr/news/articleView.html?idxno=7408> (2017.6.16. 접속).

7) 장재영, 『한국교회의 미래 10년』 (서울: SFC출판사, 2019), 159-200.

8) 김상구, “어린이 예배 갱신에 관한 소고”, 『성경과 신학』 63 (2012): 71-74.

9) 본 논문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최근 어린이 예배 침체와 인원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예배이다. 대부분 교회들은 어린이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온라인 예배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예배는 어린이들이 영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예배보다 예배순서가 간략하고, 재미있는 율동과 퀴즈, 놀이를 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온라인 예배에 대한 한계점과 우려의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다.(예배 집중 문제, 부모들의 관리 한계, 돌봄과 양육의 한계 등)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따른 어린이 예배와 신앙 성장을 위한 방안들이 필요하며, 다음세대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교회가 풀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이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린이예배의 침체 원인으로 외부적인 원인도 있지만, 내부적인 원인도 있다. 대표적인 내부 원인은 어른 예배가 그대로 축소된 주일 어린이 예배와 게임과 흥미가 있는 축제성이 강조된 예배이다. 김상구는 어린이 예배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동감 없고, 복음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어린이 예배 전문가의 부재¹⁰⁾를 들고 있다.

임영태는 “어린이 통합예배”에서 “어린이 예배 문제들은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어른 예배가 그대로 축소된 예배 구조에 따른 문제이고 또 하나는 전통 예배를 탈피한 축제적 분위기의 이른바 메빅(MEBJG), 윙윙(Wingwing), 와우큐키즈(WOW-Q-KIDZ), 앤프렌즈(nFRIENDS), 어와나(AWANA) 등의 축제 예배들이다.”¹¹⁾라고 말하고 있다.

민장배는 “어린이 예배 문제점과 대처방안”에서 “어린이 주일학교 예배를 장년 예배의 축소판처럼 드리도록 강요하는 것은 어린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린이 예배에 적용되고 있는 어와나, 와우큐키즈, 윙윙 등은 예배신학적인 입장에서 도입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양적인 성장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 예배신학적 입장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다.”¹²⁾라고 말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어린이 예배의 문제점은 예배자인 어린이에 대한 배려가 없거나, 반대로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중심으로 변질된 예배신학의 부재이다. 논자는 선행연구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어른 예배가 축소된 주일 어린이 예배, 축제성이 강조된 주일 어린이 예배와 함께 예배신학에서 본 내부적 원인을 다음과 같이 더 추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형식화되어 있는 한국교회 주일예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어린이 예배

한국교회 어린이 예배의 첫 번째 문제점은 예배자인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일예배가 축소된 예배다. 이러한 어린이 예배는 예배자인 어린이들에게 기쁨이 없다.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선교사들에 의해 교회 밖에서 교육 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온전한 어린이 예배의 형식이 없었다.¹³⁾ 선교사들에 의해 들어온 말씀, 찬양, 기도로 간소화된 어른 예배가 그대로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에도 적용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건인 복음의 양식을 담고 있는 예배의 요소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어린이 예배는 예배의 성경적, 신학적 본질을 반드시 지킴과 동시에 예배의 형식과 방법은 예배자의 눈높이에 맞추어져야 한

10) 김상구, “어린이 예배 갱신에 관한 소고”, 69-71.

11) 임영태, “어린이 통합예배 모형”, 『기독교교육정보』 24 (2009): 41-66.

12) 민장배, “어린이 예배 문제점과 대처방안”, 『복음과 실천신학』 25 (2005): 160-85.

13) 민장배, “어린이 예배 문제점과 대처방안”, 160-61을 참고.

다.¹⁴⁾ 이러한 어린이 예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일학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린이의 특성에 맞추고, 급변하는 사회를 따라가기 위한 게임과 흥미가 가득한 어린이 예배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2) 게임과 흥미 중심으로 이루어진 축제 예배

축제 예배는 어린이들에게 흥미와 집중력, 교사와 어린이들의 적극적인 참여, 게임과 놀이를 통한 축제 분위기, 익숙한 문화적 친밀감 등의 이유로 교회 어린이 수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던 예배 유형들이다.¹⁵⁾ 축제 예배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어린이 예배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주일에 어린이 예배와 주중에 어린이를 전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침체된 주일학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축제 예배는 기독교 예배의 본질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우려 속에 그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선행연구자들이 지적하는 축제 예배에 대한 공통된 한계점과 문제점은 예배와 예배 대상에 대한 인식 약화, 설교와 분반 공부의 약화, 기독교적 가치관의 혼란과 공동체성 약화, 재정 부담과 풍부한 인적 자원에 대한 요구이다.

3) 어린이를 예배자로 보지 않는 예배신학의 부재

어린이 예배를 성경공부를 병행하는 교회학교, 또 어른 예배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어린이를 예배자로 보지 않는 예배신학의 부재이다.¹⁶⁾ 한국교회 어린이 예배가 ‘주일학교’, 또는 ‘교회학교’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은 어린이 예배를 진정한 예배로서 보다는 신앙교육의 장으로, 어린이들을 진정한 예배자로 보기보다는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나타낸다. 예배를 통해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동감하지만 교육이 예배의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4) 어린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의 부족

다음 세대 부서를 중요하게, 그리고 우선으로 생각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될까?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가장 많은 시간과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 사역은 장년층이다. 또 어린이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교역자들은 얼마만큼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을까? 어린이 부서는 목회학을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은 어린이 부서를 자신들의 미래 목회로 가기 위한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부서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미래

14) 김상구, “어린이 예배 갱신에 관한 소고”, 56-88을 참고.

15) 천영섭, “사례연구를 통한 어린이 주일학교의 예배”, (미간행신학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11).

16) 김상구, “어린이 예배 갱신에 관한 소고”, 71.

목회 현장의 양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5) 복음의 생명력을 상실한 말씀선포

어린이 설교는 말씀을 듣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역동적으로 재미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전해져야 한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예배 중 설교 시간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시간이라 말할 때가 있다. 그리고 설교시간에 선포되는 성경의 이야기가 지금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천 년 전에 일어났던 옛날이야기로만 생각한다. 어린이들에게 말씀이 어린이들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그 당시 사람들인 주인공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을 듣고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복음의 생명력을 상실한 말씀선포, 즉 설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없기 때문이다.

6) 어린이 예배 모델 예식서가 전무하다.

어린이 예배 모델 예식서가 없다는 것은 현재 한국교회 어린이 예배의 양식이 예배신학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근거가 된다. 오늘날 한국교회 어린이 예배는 예배신학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기보다는 기도, 찬송(찬양), 설교, 헌금, 분반활동 등의 순서가 대부분이다. 또 각 교회 상황에 따라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 축소되거나 어린이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어린이 예배도 아무렇게나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신학을 바탕으로 한 예배가 진행되어야 한다.¹⁷⁾ 이를 위해서는 예배의 본질과 신학을 근거로 한 기독교 어린이 예배 모델 예식서가 필요하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온전히 담고 있는 어린이 예배 예식서가 신속히 만들어져 공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예배를 통해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경험하고, 기대함으로써 진정한 예배자, 다음 세대를 책임질 일꾼으로 세워지게 된다.

지금까지 제시한 한국교회 어린이 예배의 내부적인 원인을 살펴본 결과 어린이 교인이 감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 예배의 본질과 신학인 그리스도 구원사건을 상실한 어린이 예배는 어린이를 진정한 예배자로 세울 수 없다. 예배자로 인정받지 못한 어린이는 교회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교회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모든 사람, 특히 어린이를 진정한 예배자로 인정해야 한다.

어린이 예배 역시 어른 예배와 동일하게 성경에 근거한 예배의 본질과 신학이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건이 기억되고 예상되어야 한다. 논자는 그리스도 구원사건이 효과적으로 구현되는 어린이 예배를 “그리스도 중심적 어린이

17) 양윤정,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 기초한 유치부 예배모형”, (미간행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10), 5.

예배”라 지칭한다. 어린이 예배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와 회중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기독교 예배,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가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어린이에게 맞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할 때, 어린이들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된다. 바로 이러한 어린이 예배 안에서 어린이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질 때 한국교회의 미래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그리스도 구원사건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어린이 예배의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어린이 예배가 진정한 기독교 예배로, 그리고 어린이가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안들을 제안한다.

2. 그리스도 구원사건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안

논자가 어린이 예배 가운데 실행한 경험을 토대로 그리스도 중심적 어린이 예배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 구원사건의 효과적인 구현 방안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 선포 실제적 실행

설교는 어린이 예배 가운데서 복음인 그리스도 구원사건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예배 요소이며, 언어적 요소 중 하나다. 어린이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 구원사건이 효과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어린이 예배 가운데 잘 실행되기 위해서는 첫째, 말씀을 준비하는 교역자의 자세가 중요하다. 둘째, 말씀을 전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셋째, 설교자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

(1) 말씀을 준비하는 설교자의 자세

그리스도의 구원사건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설교의 방법, 설교 도구 등 다양한 부분이 중요하지만,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준비하는 설교자의 자세이다. 말씀을 준비하는 설교자의 자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을 올바르게 읽고 해석해야 한다. 설교자는 성경 위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아래서 있어야 한다. 추상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상관적이고 열정적으로 읽고 설교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¹⁸⁾ 그리고 성경을 분석하는 차원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아래서 성경이 우리 일상의 삶, 관습, 생각, 행동 모두

18) Robert Webber, 『예배학』, 이승진 역 (서울: CLC, 2011), 163.

를 읽도록 허용한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설교해야 한다.¹⁹⁾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다음은 정확하게 알게 된 성경의 의미를 어린이들의 삶에 맞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설교자는 성경 본문이 자신의 이야기로 읽혀지고 적용함으로써, 이를 어린이에 눈높이에 맞추어 어떻게 설교 되어야 할지 그 방법을 찾게 된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과 어린이의 음성에 집중해야 한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 동시에 어린이의 심장에서 울리는 고통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야 한다.²⁰⁾ 설교학 교수인 실리에(Johan H. Cilliers)는 설교자의 음성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²¹⁾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 본문의 음성을 통해서 시대의 음성(어린이들의 상황) 속에서 설교자의 (독특한)음성으로 들려올 때 발생된다. 이 네 음성이 하나의 음성으로 합류할 때야말로, 설교는 진정한 살아 있는 복음의 음성이다.” 복음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하기를 열망하는 음성이다. 설교자는 먼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며, 다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어린이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설교를 듣는 대상자의 연령에 맞는 언어와 자료를 연구해야 한다. 어린이 설교를 준비하려면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의사소통의 기술을 개발할 시간이 필요하다.²²⁾ 설교자는 어린이들이 자신이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단어 사용해야 한다.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떠오르게 하는 은유의 관점에서 읽고 설교해야 한다. 그리고 연령대가 가장 공감할 수 있고 가슴에 깊게 새길 수 있는 자료들을 모으고 개발해야 한다.

넷째, 준비한 말씀이 설교자에게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설교자들은 신실한 증인이 되도록, 즉 설교자가 먼저 성경을 통해서 전해 듣고 감동받고 위로받았던 것에 대한 모범이 되도록 부름 받았다.²³⁾ 어린이 예배의 설교자들은 자신들이 만난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린이들도 동일하게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초대한다.

다섯째,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설교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구조이자, 가장 근본적인 형식이다. 설교자는 기도를 통해서 고유한 영성이 형성되고, 이 영성이 다시 설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²⁴⁾ 하나님께 집중하는 올바른 기도는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 본문으로부터 요청받는 저항감, 자신의 철학적

19) Webber, 『예배학』, 163.

20) Johan H. Cilliers, 『설교 심포니』, 이승진 역 (서울: CLC, 2014), 67-68.

21) Cilliers, 『설교 심포니』, 68.

22) Beth Edington Hewitt, 『빨려드는 어린이 설교』, 이은영 역 (서울: 좋은씨앗, 2010), 45-46.

23) Cilliers, 『설교 심포니』, 368.

24) Cilliers, 『설교 심포니』, 371.

인 질문, 인간관계 등 많은 방해하는 요소들로부터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설교자는 자신이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통로임을 명심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린이를 영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²⁵⁾

(2) 효과적인 복음 전달을 위한 설교방법과 도구 활용 방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방법과 도구의 활용은 본질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가 갖는 발달적인 특성에 맞게 다양성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에게 영향력 있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아동발달과정의 특성과 관련된 성경 내용 사이의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²⁶⁾ 논자는 이영란이 제시한 “어린이를 위한 복수 지능 설교 방법”을 참고하여 그리스도 구원사건의 효과적인 구현과 어린이의 집중을 증가시키는 설교방법과 종류, 도구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표-1> 그리스도 중심 설교를 위한 설교방법, 종류, 도구²⁷⁾

설교 방법	설교 종류	설교 도구
언어적 설교	강해설교, 이야기설교, 신문기사설교, 퀴즈설교 비유설교, 성경 드라마 낭독설교 등	이미지 빅북, PPT 이미지 신문스크랩
음악적 설교	언어적 설교방법에 음악적 요소를 가미한 설교방법이다. 찬송(찬양)설교, 랩설교, 음원을 통한 리듬설교 등	다양한 악기, 손에 들 수 있는 작은 악기와 소품들, 음원
논리적 설교	설교 본문으로부터 도출한 하나의 명제나 시나리오를 어린이들에게 먼저 읽어주고 그 진술 혹은 이야기에 동의하는지 아닌지를 묻고 어린이에게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묻는 설교방법이다. 소크라테스식 질문설교, 차트설교 수학퍼즐설교 등	화이트보드판 PPT이미지 자료
공간적 설교	예배 공간의 모든 것과 도구를 사용하는 설교이다. 시각적 예증설교, 물체 설교, 두루마리설교, 건축설교, 성경적 상징설교, 소모형설교, 종이조각설교, 틀설교 등	예배 공간에 있는 모든 것, 천, 동영상, 종이, PPT 이미지, 성경 상징적 모형들, 초, 십자가, 인형 등
신체적 설교	마루게임설교, 패턴 따라 걷기설교, 단막극, 율동설교, 실행설교 등	음원, 악기, 의상, 조명 등

25) Bryan Chapell,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김제기 역 (서울: 은성, 1999), 20.

26) Hewitt, 『빨려드는 어린이 설교』, 24.

인간 면적인 설교	‘나’봉투설교, 선지자설교, 1인칭설교, 인터넷설교, 개인적인 연관짓기설교, 파토마임설교 등	봉투, 이미지, 의상, 음원분장, 다양한 소품 등품 등
-----------------	---	--------------------------------

위와 같은 어린이 설교의 방법과 도구를 사용할 경우 유의한 점은 첫째, 어린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 둘째, 성경이 현실적이고 연관성 있는 것으로 변한다. 셋째, 설교에 집중하게 한다. 이러한 어린이 설교를 위해서는 어린이들의 생활환경과 그들의 관심사, 생각들을 알아야 한다.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설교방법, 내용,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²⁸⁾ 첫째, 어린이 설교시간은 어른들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가장 핵심이 되는 하나의 주제로만 전달해야 한다. 둘째, 성경 이야기와 본문을 압축하고 편집해야 한다. 셋째, 도구들을 단순화시키고, 작동이 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넷째, 도구 사용을 연습하고 자신감 있게 사용해야 한다.

(3) 성령의 도우심을 의존하기 위한 방안

어린이 특성을 고려한 많은 새로운 방법들과 어린이 설교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잘 지켜서 준비된 설교라 할지라도 설교자가 성령을 의존하지 않는다면, 그 설교는 생명력이 상실된 성경 속 옛날이야기로 끝이 날 것이다.

설교자가 처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어린이들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등을 온전히 성령님께 맡기고 의존함으로 말씀을 선포한다. 하지만 반복되는 설교는 어느덧 자신의 경험, 지식, 설교 스킬이 쌓여가면서 나만의 설교가 되어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매일 지속적으로 허영심으로부터 떠나는 회개가 필요하다. 겸손해야 한다.

설교자에게 겸손을 강조한다고 해서 설교자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설교자는 겸손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은 설교자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설교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신다. 성령 하나님은 설교에서 신율론적인 상호주의 방식으로 역사하시며, 설교의 주도권을 장악하시지만, 설교자들이 복음의 선포에 봉사하도록 반복적으로 그들을 받아들이신다. 설교자가 불가능한 것을 그분은 가능하게 하시며, 설교자의 생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그분은 실행 가능하게 바꾸신다.²⁹⁾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존하여 선포하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죽은 문자에게

27) 이영란, “어린이를 위한 복수 지능 설교방법”, 『설교한국』 1 (2009): 187-225.

28) Hewitt, 『빨려드는 어린이 설교』, 32-33.

29) Cilliers, 『설교 심포니』, 365-66.

속한 설교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성령의 설교자이다. 문자는 죽이지만 성령은 생명을 주신다.³⁰⁾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안에는 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재 되어있다. 말씀 안에 내재 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말씀의 능력,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삶으로 적용되는 말씀의 능력이다.

2) 어린이를 위한 성례전 신앙교육 실행 방안

논자는 한국교회 어린이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 구원사건이 효과적으로 구현되기 위한 방안으로 성례전에 대한 신앙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성례전은 기독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방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말씀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례전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다.

이처럼 기독교 예배 가운데 중요한 성례전은 종교개혁 이후 개혁신교회 예배 가운데서 소외되었지만, 오늘날 성례전을 회복하기 위한 연구와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한국교회 예전적 영역은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미흡하고 비활성적이다. 어린이 예배에서 성례전 실행과 이를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은 이제 첫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세례에 대한 유아와 어린이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견해 차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유아와 어린이 세례에 대한 의견 차이와 논쟁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³¹⁾ 한국교회 교단들의 견해 역시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형성된 성례전의 관습에 대한 역사적 논쟁이나 신학적 근거는 찾기 어렵다.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성례전과 관련한 목회적 지침서나 교육에 관련된 자료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³²⁾

오늘날 침체된 한국교회의 어린이 부서를 일으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유아세례와 유아성찬에 대한 교단 차원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³³⁾ 목회 현

30) Cilliers, 『설교 심포니』, 96.

31) 논자의 “그리스도 구원사건의 효과적 구현을 위한 어린이 예배” 논문 2장의 역사적인 문헌들과 3장 신학자들의 어린이 이해에서 언급하고 있음. 재세례파의 유아세례 반대 이유는 유아들은 주를 믿는 신앙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하였다. 그 근거는 침례요한(세례요한)도 회개 후 침례(세례)를 주장하였고, 예수도 제자 삼은 뒤 침례(세례)를 주라고 분부하셨기 때문이다.

32) 김세광, “어린이(아동) 세례 연구”, 『신학과 실천』 57 (2017): 7-31.

33) <https://www.nocutnews.co.kr/news/4777681> (2019.12.1. 접속).

감리교의 경우 세례를 받았다면 입교 전이라도 유아와 어린이들에게 성찬을 허락한다. 성결교는 원래 유아세례를 반대하고 어린이 세례와 어린이 성찬을 행한 교단이지만, 20여 년 전부터 유아세례와 유아성찬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성공회의 경우 2004년도에 모든 신자가 견진례(입교)가 없어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유아세례라는 용어 대신 어린이 세례라는 용어를 쓰며 나이 제한을

장에서는 유아세례를 받지 못한 어린이들에게도 세례를 줄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 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³⁴⁾ 유아세례와 유아성찬에 대한 논자의 견해를 조심 스텁게 언급하자면, 어린이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 교역자로서 유아와 어린이들이 세례 대상자이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임을 인정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연 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어린이를 위한 성례전 신앙교육이 교회 현장에서 개발되 고 실행되어야 한다.

(1) 어린이를 위한 성례전 신앙교육을 실행

성례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주심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지속적인 표징이다.³⁵⁾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시화된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성례전에 직접 참 여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 성례전에 참여할 예비 참여자이다. 어린이들은 예비 참여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례전 신앙교육을 실행되어야 한다. 어린이를 위한 성례전 신앙교육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 예배 구조와 다양한 요소를 통해 성례전 신앙교육을 실행할 수 있다. 어린이가 예배순서를 맡아 예배의 응답자로 참여하거나, 또 예배 안에서 찬 양, 오늘의 기도, 성경읽기, 축도 등 다양한 요소를 경험함으로써 신앙적 의미를 배 운다. 그리하여 어린이들이 성례전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유아세례자인 어린이에게 입교반 교육을 세례 대상자인 어린이에게는 세 례를 위한 교육이 실행되어야 한다. 유아세례 후 15세가 되어 실행하는 입교는 그 냥 전통적으로 실행되는 하나의 통과례가 아니다. 이는 정식으로 교회공동체 일 원이 되었음을 세례언약의 공적이고 복음적 증거로 선포하는 것이다.³⁶⁾ 유아 세례 자는 입교시까지 기도하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훈련, 죄에 대한 저항, 교리, 성찬에 대한 충분한 지식의 습득할 수 있도록 교역자는 가르치고 어린이는 배우면서 입교를 준비해야 한다. 또 유아세례를 받지 않은 어린이들은 세례 대상자 로서 입교를 준비하는 유아세례 어린이들과 동일하게 세례를 위한 신앙교육이 이 루어져야 한다. 최근 합동에서는 어린이 세례 기본 매뉴얼인 『어린이 세례 문답 집』을 발행하였다.³⁷⁾ 문답집에는 어린이 세례 시행 지침에서부터 문답 청원서, 문

없었다.

34) <https://www.nocutnews.co.kr/news/4777681> (2019.12.1. 접속).

자세한 내용은 노컷뉴스 2015.7.1. 자료를 참고하라.

35) James White,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선물 성례전』, 김운용 역 (서울: 예배와설교 아가 데미, 2006), 45.

36) Charles D. Hackett & Don E. Saliers, 『예배와 예식 모범』, 김순환 역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08), 77.

답서, 서약문과 세례식 절차 등이 담겨있다.

셋째, 세례식과 성찬에 직접 참여하는 현장 신앙교육을 실행해야 한다. 어린이들이 어른 예배에서 실행되고 있는 세례식과 성찬식에 특송, 도우미 등으로 참여함으로써 공간, 분위기, 인도자의 말, 제스처 순서 등 역동적인 예전의 참여를 통해 성례 예전을 익힐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예배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단순히 성례전을 눈으로 보는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세례와 성찬에서 사용되는 물과 빵, 포도주의 의미와 상징적인 제스처 등에 대한 뜻과 의미를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교육을 확장시켜야 한다.

넷째, 선포(말씀)를 통한 성례전 교육이 실행되어야 한다. 말씀은 예전의 의미를 전하고 교육하는 주요 통로이다.³⁷⁾ 말씀을 통해 예전에 대한 바른 지식과 태도를 가르칠 수 있다. 그리고 교회력에 의한 절기 예배 때는 절기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상징들을 가르칠 수 있다.

다섯째, 애찬식을 통해 성찬식을 경험한다. 어린이들이 어른 예배에서 실행되는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어린이 예배 자체에서 애찬식으로 어린이들이 성찬식의 의미와 뜻을 알고 경험하게 한다.³⁸⁾

20세기 중엽부터 세계 주요 교단들은 어린이 세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린이 세례를 도입하고 있으며, 한국교회 교단에서도 중요성을 인정하고 실행하고 있는 교단이 있다.⁴⁰⁾ 위에 제시한 성례 예전을 위한 신앙교육이 체계적이고 가장 좋은 신앙교육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를 통해 어린이 예배에서 그리스도 구원사건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성례전을 어린이들이 미리 체험하고 준비하여 진정한 예배자로, 공동체 구성원으로 세워지길 소망한다.

3) 그리스도 구원사건을 따라가는 절기 예배 실행 방안

그리스도 구원사건을 따라가는 절기 예배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재림 안에서 완성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매년 재현하는 것이다.⁴¹⁾ 이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교회력⁴²⁾이다. 교회력은 일 년 동안 하나님의 자

37) 기독교신문 <http://www.kidok.com> (2020.06.01. 접속).

38) 김성원, “예전의 의미를 전하는 어린이 교육”, 『기독교교육정보』 25 (2010): 82.

39) 기독교교육학을 전공한 감리교목회자들에 의해 『열린성찬』이라는 어린이 예배 성찬을 위한 예문, 찬양, 기도문 등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40) 김세광, “어린이(아동) 세례 연구”, 9. 한국감리교회는 아동(어린이)세례를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논 문자료를 살피면서 예배학과 기독교 교육에서 어린이 성례전 연구를 위한 근거 자료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1) Horace T. Allen, Jr., *A Handbook for the Lectionary* (Philadelphia: The Geneva Press, 1980), 25; 주승중, 『은총의 교회력과 설교』, (서울: 장로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80에서 재인용.

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달력이라 할 수 있다.

교회력에 따른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 행하신 구원사건들을 가장 잘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도 중심적 어린이 예배의 실현은 교회력에 근거한 어린이 예배를 실천할 때 가능하다. 어린이 예배 안에서 그리스도 구원사건의 효과적인 구현 방안이 되는 그리스도 구원사건을 따르는 어린이 절기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절기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예배를 실행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구원사건(교회력)을 따른 절기와 의미⁴³⁾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교회력은 한 해 동안 크게 부활절과 성탄절 두 개의 주기로 나누어진다. 부활절을 중심으로 이루는 사순절-부활절-성령강림절을 부활절 주기라 부른다. 그리고 성탄절을 중심으로 이루는 대림절-성탄절-주현절로 성탄 주기이다. 성령강림절 이후와 대림절이전까지 절기를 비절기로서 영어로 Ordinary Season, 즉 보통의, 평범함, 일상의 혹은 평주일 절기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이러한 비절기 용어는 예전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별 의미가 없는 기간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이 기간은 오히려 주일의 주일됨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간이다.⁴⁴⁾ 교회력에 따른 절기와 의미를 알았다면 어린이 예배 가운데 교회력에 따른 절기 예배를 실행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교회력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믿음을 충분히 반영하는 절기로서 발전되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죽으심, 부활, 성령님이 함께 하심,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어린이 예배에서도 교회력을 회복하여 충실이 따를 때 예배의 다양성과 기독교적인 흥미를 갖는 좋은 방법이 된다. 어린이 예배에서 그리스도 구원사건을 따른 절기가 제대로 실행되기 위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어린이 예배를 준비하는 교역자와 교사가 그리스도 구원사건을 따른 절기에 대한 관심과 풍부한 지식이 요구된다. 그러나 어린이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교역자들의 교회력 대한 중요성이 결핍되어 있다. 대부분의 교역자들은 어린이 예배의 본질보다는 설교의 방법, 어린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활동 등에 더 중요성을

42) 교회력은 4세기 말에 거의 완성되었는데, 처음에는 부활절을 전후로 해서 사순절과 부활절 절기, 그리고 오순절이 발전하게 되었으며, 4세기에 이르러 하나님을 증거 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됨과 관련하여 주현절이 등장했다. 이 주현절이 4세기 말에 성탄절과 나누어지고, 그 후에 마지막으로 대림절이 생겨나게 되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력의 기본은 4세기 말에 그 기본적인 틀을 갖추게 되었다.

43) 본 논문 “그리스도 구원사건의 효과적 구현을 위한 어린이 예배 연구” 5장 2절 3항에 교회력에 따른 절기와 의미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음(292~94p).

44) 초대교회에서 비절기 기간의 주일을 ‘작은 부활주일’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재현하였다.

두고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어린이 예배에서 그리스도 구원사건이 효과적으로 구현되는 교회력에 따른 절기 예배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린이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이 교회력에 관심을 가지고, 그에 따른 예배를 실행하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

둘째, 작은 부활절인 주일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야 한다.⁴⁵⁾ 오늘날 주일의 의미를 막연하게 또는 한 주 간의 마지막 휴식, 또는 구약의 안식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주일은 교회력의 기초가 되는 주의 날이고, 매 주간의 첫째 날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임을 알도록 가르쳐야 한다. 주일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된 어린이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자리에 나오는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

셋째, 어린이들이 교회력의 본질적인 의미와 기능에 대하여 이해하고 기다리고 즐길 수 있게 한다. 어린이들이 교회력에 따른 절기들을 알고 그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리스도 구원사건을 따라가는 절기는 구원사건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프락시스로서, 어린이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다양하고 폭넓게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절기들과 그 의미를 이해한 어린이들은 교회력에 따른 절기 예배들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믿음의 어린이로 성장한다.

넷째, 절기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그리스도 구원사건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스도 구원사건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특징을 담고 있는 교회력에 따른 절기 예배를 더 효과적으로 드리고, 어린이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어린이 부서의 교역자와 교사들은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쉬지 않아야 한다.

대부분 한국교회에서 실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교회력에 따른 절기는 성탄절, 부활절이다. 이런 결과는 성탄절, 부활절과 같은 대축일만 예배를 통해서 그 절기의 의미를 회중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결과라 할 수 있다.⁴⁶⁾ 그러나 교회력의 가장 큰 두 축인 성탄절과 부활절에 대한 기다림과 기쁨을 배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다른 절기들이 어린이 예배 가운데 정착되어서 어린이들도 진정한 예배자의 기쁨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도록 해야 한다.

4) 성서정과⁴⁷⁾에 따른 말씀 읽기 활성화 방안

45)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첫째 날, 부활의 날(주의 날), 종말론적 완성을 의미하는 여덟 번째 날.

46) 박해정, 『빛을 따라 생명으로』, (서울: 동연, 2016), 49.

47) 성서정과란 교회력에 수록되어 있는 다양한 날들과 관련 있는 성경 구절의 목록이다. 그 기원은 유대의 회당 예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성경말씀을 체계적으로 읽는 모습은 유대교의 회당에서부터 이미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초대 교회로 이어졌고 로마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중세교회에서는 교회력과 함께 변질되었다가

오늘날 한국교회 어린이 예배에서 성서정과에 따른 말씀 읽기와 설교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⁴⁸⁾ 대부분 성경봉독은 설교 전 한 번 봉독하거나 학령기전 부서에 서는 그날 선포될 말씀의 핵심 구절만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어린이 예배를 말씀의 빈곤과 동시에 편식을 가져다주는 결과로 이어진다.

예배시간에 읽고 설교할 성경 본문을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⁴⁹⁾ 여러 가지의 성경 본문 선택 방법 중 본 논문에 제시하고자 하는 선택 방법은 교회력에 따른 성서정과이다. 성서정과는 교회력에 따라 말씀을 배정해 놓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오순절 이후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한 교회 설립과 확산에 중심을 둔 3년 주기로 구성되어 있다.

설교의 본문을 성서정과에 따라 정하면 주일 예배가 자연스럽게 교회력을 따라 가게 되고, 성경 본문 주제에 맞는 찬송과 기도를 선택하고, 설교자와 진행자의 의상 색깔과 예배실 장식 등을 교회력에 맞추면, 예배는 그리스도 중심적이 된다.⁵⁰⁾ 성서정과는 어른 예배만이 아니라, 어린이 예배도 그리스도 중심적 어린이 예배가 될 수 있게 한다.

그리스도 중심적 어린이 예배에서 성서정과에 따른 말씀 읽기에 대한 실행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교역자가 매 주일 성서정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4개의 본문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 가운데 복음서 본문은 설교로 정하고 남은 3개의 본문은 예배자의 연령에 맞게 본문 길이를 정하여 설교 전 어린이들이 모두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둘째, 설교 전 예배순서에 따라 예배를 인도하거나, 찬양을 인도하는 선생님과 친구들이 한목소리로 봉독하거나, 서로 교독한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말씀을 읽고 이에 맞는 찬양으로 화답을 하는 진행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말씀에 대한 어린이 찬양이 다양하게 개발되지 않은 한국교회 현실에서는 매우 힘든 진행이다. 학령기전 어린이 예배에서는 진행자가 먼저 읽고 어린이들이 따라 있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셋째, 성경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어린이들이 쉽게 받아드릴 수 있도록 쉬운 성경, 어린이 성경, 새번역 성경을 사용한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나 용어가 있을 경우 인도자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해준다.

19세기 말 장로교의 본산인 스코틀랜드교회가 예배회복운동과 함께 1940년 교회력에 합당한 성서정과를 채택하였다.

48) 최근 가톨릭에서 어린이 예배가 형성되면서 예배순서 안에 성서정과 따른 말씀 읽기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49) ① 설교자가 무작위적으로 본문을 선택하는 방법, ② 설교자가 교회와 목회와 회중들의 생활과 상황에 맞는 본문을 선택하는 방법(lectio Selecta), ③ 성경을 계속적으로 읽어 내려가는 방법(lectio Continua), ④ 교회력에 따른 성서정과(Lectioary)

50) 조기연, “새해에는 교회력을 지키자”, 『활천』 590 (2003): 48-50.

넷째, 가장 좋은 대안은 성서정과에 따른 어린이 공과가 제작되는 것이다. 성서정과의 제시된 성경 본문으로 말씀 읽기, 설교, 활동 등으로 이어지는 공과가 교단과 선교단체 차원에서 제작되길 소망한다.⁵¹⁾

이러한 성서정과에 따른 말씀 읽기가 그리스도 중심적 어린이 예배에서 실행될 때 다음과 같은 유익함이 있다. 첫째, 어린이 예배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먼저 말씀하게 한다. 둘째, 예배에서 어린이들을 수동적인 자리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리로 이끌 수 있다. 셋째, 설교의 양과 질 모두 다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말씀을 골고루 풍성하게 접할 수 있다. 넷째, 예배자인 어린이의 믿음을 성장시킨다. 교회력에 따라 성경 말씀을 읽어나가는 성서정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다. 이는 믿음의 고백인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들이 성서정과에 따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그 믿음을 성장하게 한다.

그러나 성서정과에 따른 때 예상되는 문제점들도 있다. 설교자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 성경 본문 어디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어야 할까, 어린이들에게 이해하기 어렵거나 적절한 말씀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어린이들이 속한 사회적 문화적 절기나 특성과 상충되는 문제 등이다.⁵²⁾ 그럼에도 예배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정과 사용은 그리스도 중심적 어린이 예배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방안으로 포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어린이 예배에서는 어른 예배보다도 더 말씀을 읽는 시간과 기회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5) 상징적인 비언어의 효과적인 적용 방안

예배의 비언어는 오감과 신체적 움직임, 그리고 예술(음악, 미술, 연극 등)과 공간이다. 예배의 비언어들은 어린이 예배를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예배로 만든다. 그리스도 구원 이야기가 어린이들에게 생동감 있게 들려짐으로 확실하게 기억되고, 온전히 경험되고, 믿음으로 기대하게 하여 역동적인 반응으로 응답하게 한다. 이렇게 어린이 예배에서 그리스도 구원사건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비언어의 효과적인 활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오감과 신체 움직임의 효과적인 적용

예배 안에서 오감과 신체의 움직임은 자연스러운 행위이며 그 자체로 풍성한 상징적 비언어들로서 그리스도 구원사건을 효과적으로 구현한다. 어린이 예배에서

51) 논자는 교회력에 따른 성서정과를 바탕으로 한 어린이 공과에 대한 유익한 점을 “그리스도 구원사건의 효과적 구현을 위한 어린이 예배 연구” 5장 2절 4항에서 제시함 (298-99p).

52) 주승중, 『은총의 교회력과 설교』, 306-07.

언어의 소통을 더욱 강화시켜주고, 영적인 예배행위라 할 수 있는 몸의 언어인 보고, 냄새를 맡고, 듣는 감각과 팔 다리로 움직이는 신체의 다양한 표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의 소통인 말씀 읽기를 더욱 강화시키는 비언어 적용이다. 이를 위해 제시하고자 하는 방식은 음율이 있는 찬트 형식으로 읽기, 말씀 중 중요한 단어를 이미지와 기호로 대체하기, 본문을 잘 표현하고 있는 시각자료 사용하기, 본문에서 나타낼 수 있는 효과 음향 사용하기, 성경을 읽을 때 팬터마임이나 춤을 동반해 안에 담긴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⁵³⁾ 등이 있다.

둘째, 언어의 소통인 기도를 더욱 강화시키는 비언어 적용이다. 기도는 언어와 비언어가 함께 표현되는 예배요소이다. 예배자인 어린이에게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고 그 의미를 설명해 줌으로써 기도에 더 집중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눈을 감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님만 생각해요.

손을 모으고: 간절한 마음, 소중한 마음을 담아요.

무릎을 꿇고(다리를 모으고): 하나님을 높여요.(무릎을 꿇는 자세는 인간의 무가치성과 죄의식이 예배의 의식을 지배하게 된 훨씬 후에 발전된 것이다.⁵⁴⁾ 간구와 경배, 참회 등)

셋째, 언어의 소통인 찬양을 더욱 강화시키는 비언어 적용이다. 찬양을 더욱 강화시키는 비언어는 모든 오감과 신체를 사용한 율동이다. 율동은 찬양과 함께 표현의 수단으로서 가사가 담고 있는 의미를 더욱 강화시켜준다. 율동의 대표적인 동작들은 일어서기, 박수치기, 팔을 높이 올리기, 팔을 가슴에 모으기, 발로 걷기와 뛰기 등 다양하다. 어린이들은 자신들의 동작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친구들과 사랑을 표현한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인 찬양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끌어주는 율동이 되기 위해서는 찬양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담당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효과적인 표현 방안으로 새로운 찬양의 율동을 배우는 경우 다음과 같은 단계를 제시해 본다.

1단계: 어린이가 찬양의 가사와 그 의미에 대하여 어느 정도 숙지가 되었을 때 율동 동작을 배운다.

2단계: 찬양 한 소절 한 소절 동작을 알려주고 가사에 의미와 연결하여 동작에 의미를 전달해준다.

3단계: 피아노 반주 속도에 맞추어 동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2~3번 반복한다.

53) Robert Webber, 『예배의 고대와 미래』, 가진수 역 (서울: 위십리더, 2019), 189.

54) 김순환, 『예배와 예술』 (서울: 쿤란출판사, 2014), 100.

4단계: 가사와 동작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한 달(4주)정도 매주 찬양을 부른다.

넷째, 언어의 소통인 성경 이야기를 더욱 강하시키는 비언어 적용이다. 언어의 소통인 성경 이야기를 더욱 강하시키는 비언어의 요소들은 시각 이미지, 청각적인 다양한 음향, 후각을 통한 향기, 미각을 통한 맛과, 촉감을 통한 온몸으로 체험 등 다양하다. 이러한 모든 감각과 신체를 사용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린이들이 성경의 하나님 구원 이야기를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주인공,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보는 것이다.⁵⁵⁾

어린이들을 온몸으로 참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는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가장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이에 대하여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 루터교회의 『예배 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⁵⁶⁾ “제스처, 예전적 움직임, 춤과 같은 예배 안에서의 행동들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러한 비언어적 요소들은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동반하는 언어들도 지지하기도 하며 강화시켜 주기도 한다.”

때로는 어린이가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귀 뿐만아니라, 다른 다양한 오감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몸의 표현을 억지로 강요해서도 안 된다. 어린이들이 몸의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낯설지 않고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해야 한다.

(2) 예술적 상징과 공간의 효과적 적용

어린이 예배에서 예술은 음악, 춤, 드라마, 색 등 그 요소들이 다양하다. 공간 역시 교회 건물, 가구, 상징물 등 모든 환경을 말한다. 예술과 공간은 전달하는 힘과 생동감을 가지고 있다. 예술은 직관적인 언어로, 공간은 잠재적인 언어로 메시지를 강화시키고 전달한다. 그러므로 예술과 공간은 보이는 말씀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마셜 맥루한(Marshall McLuhan)⁵⁷⁾의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예배에서 예술과 공간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 사역에 대한 기쁨을 함께 모여 전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메시지를 전달한다.⁵⁸⁾ 어린이 예

55) 논자가 현장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체험해 본 대표적인 성경 이야기는 노아의 방주 체험,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체험(구름기둥/불기둥, 홍해바다 건너기, 만나와 메추라기, 십계명, 바위에서 물이 솟아남 등), 오순절 성령체험(마가의 다락방), 선교하는 바울 등이다.

56) Robert Webber, 『예배의 미래를 준비하라』, 양정식 역 (서울: 위십리더, 2014), 116.

57) 1911년 캐나다에서 출생하여 1980년 그의 생애를 마감할 때까지 영문학자, 사회사상가, 문예비평가, 커뮤니케이션 이론가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부분에서 맥루한 열풍을 일으키며 활약하였다.

58) Webber, 『예배의 고대와 미래』, 231.

배에서 예술과 공간을 활용한 그리스도 구원사건의 구현을 위한 효과적인 적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와 교회력에 대한 표현의 색깔을 효과적으로 적용해야 한다.⁵⁹⁾ 기독교의 절기인 교회력에서도 그 절기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색깔들이 있다. 절기를 표현하는 색깔은 교회력에 따른 절기의 의미가 쉽게 전달되고 이해되며 기억되게 한다. 어린이 예배에서 절기를 상징하는 색깔 적용을 위한 활용은 다음과 같다.

PPT 활용: 예배 진행을 돕는 PPT 배경의 테두리나 글씨를 절기에 해당되는 색깔을 활용한다.

천 활용: 설교와 행사, 장식, 간식 데이בל 등 절기에 해당되는 색 테이블보를 활용한다.

의상과 액세서리 활용: 교사들과 어린이들이 절기에 해당되는 색깔의 의상을 입거나, 또는 액세서리(머리핀, 띠, 코사지, 스카프, 나비넥타이, 양말 등)를 착용한다.

둘째, 기독교를 표현하는 상징적 도구를 효과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기독교를 표현하는 대표적 상징물은 성경, 십자가, 세례반, 설교단, 성찬떡과 잔, 다양한 기호(물고기, 비둘기, 불꽃 등)이다. 논자의 경험과 선행연구자들⁶⁰⁾에 자료를 통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상징물들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2>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상징물

삼위하나님	상징들
하나님을 표현하는 상징	하나님의 손, 빛, 사랑(하트) 등
예수님을 표현하는 상징	십자가, 물고기, 빛, 목자, 사랑(하트), 양, 포도나무 등
성령님을 표현하는 상징	비둘기, 구름과불꽃, 사랑(하트), 바람 등

위 표에서 제시한 상징들은 설교를 돕는 이미지(PPT)와 찬양 가사를 띄우는 화면(PPT)배경을 활용할 수 있다. 기독교를 표현할 수 있는 상징들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알려주고 이를 예배 가운데 어린이들이 쉽게 접함으로 그 의미를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절기를 표현하는 상징적 도구들을 효과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그리스도 구원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회력의 절기의 상징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와 연관된 상징들로서 효과적인 구현의 프락시스 요소라 할 수 있다. 어린이 예배에 적용

59) 본 논문 “그리스도 구원사건의 효과적 구현을 위한 어린이 예배 연구” 5장 2절 3항과 5항에서 교회력에 따른 절기와 의미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음(292, 304p).

60) 김순환, 『예배와 예술』, 104-14.

할 수 있는 상징들은 다음과 같다.

<표-3> 교회력에 따른 절기 예배에 적용할 수 있는 상징

절기	상징 요소들
대림절	성탄목(나무, 사과, 장미, 촛불, 빵)/대림절초(4개:진보라, 연보라, 분홍, 하얀)
성탄절	별, 천사, 양치기, 마구간, 구유 등
주현절	동방박사(3가지 선물), 예수님 세례, 가나안 혼인잔치 등
사순절	종려나무, 가시면류관 등
부활절	승리의 양, 나비, 계란 등
성령강림절	비둘기, 불꽃 등

어린이들에게 위 표에서 제시한 상징을 매년 절기 동안 설명하고, 직접 보고, 만들고, 만짐으로 기억의 장치를 가동시켜 능동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절기를 나타내는 상징들은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 구원사건을 기억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된다.

넷째, 성경 이미지와 조형물을 통한 상징물들을 효과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성경 이미지와 조형물은 매주 예배에 그리거나 설치하기는 쉽지 않다. 어린이들의 신앙훈련이 집중되는 여름과 겨울 수련회와 절기 예배 때 설치함으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수련회와 절기에 포인트가 되는 성경 본문을 그림과 색상지를 활용한 대형 입체적 이미지를 제작하거나 우드락과 색상지 등을 이용한 소형 입체 조형물을 제작할 수 있다. 이것은 어린이 부서의 교역자와 교사의 열정, 달란트, 시간을 요구하는 작업이지만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 구원사건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프락시스로서 최고의 요소가 된다.

다섯째, 어린이 예배에서 드라마(역할극)와 무용의 상징성을 효과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드라마와 무용은 어린이들이 자신의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시청각 상징을 말한다. 여기에는 언어(대사)적 비언어(모든 신체, 오감, 음향, 조명, 의상, 배경, 소품 등)적 요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그리스도 구원사건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게 된다. 어린이 예배에서 매주 드라마(역할극)와 무용을 준비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이를 공간, 시간, 인력, 재정이 요구되는 상징들이기에 교회와 어린이 부서의 상황에 맞게 준비해야 한다.⁶¹⁾

61) 어린이 예배에서 드라마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설교시간이다. 드라마로 말씀을 전하는 방법은 인형극, 무언극(판도마임), 역할극, 1인칭 역할극 등이 있다. 교사 수와 교사의 달란트가 풍부한 어린이 부서는 다양한 드라마를 준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설교자의 1인칭 역할극이 가능하다. 어린이 예배에서 무용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말씀 전이나 예배 후 활동 시간이다. 무용으로 표현 가능한 성경 본문일 경우 선생님 또는 설교자가 동작을 준비하여 말씀 도입 부분에서 적용한다. 특별한

지금까지 어린이 예배에서 그리스도 구원사건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비언어인 오감과 신체 움직임, 예술적 상징과 공간에 대한 효과적인 적용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예배자인 어린이가 얼마나 많은 언어와 비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어린이는 자신의 모든 감각과 신체를 움직임, 그리고 에너지로 예배한다.

전통적으로 내려온 기독교의 많은 아름다운 상징적 기호들은 국제적인 기독교 언어로서 어린이들에게 신학을 가르침에 도움을 주며, 비언어인 몸짓 역시 신앙을 가르치는 방법이다.⁶²⁾ 그러므로 오늘날 어린이 예배 가운데 비언어인 몸짓과 기독교의 아름다운 상징적 기호들에 대한 올바른 적용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 논자가 제시한 요소들 외에도 더 많은 요소들이 있으며, 이를 위해 그 요소들을 계속해서 찾고,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Ⅲ. 나가는 글

본 논문은 오늘날 인원의 감소와 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교회 어린이 예배에 대한 회복 방안을 제시하기 연구이다. 문제의 원인으로서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문제를 모두 들 수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내부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예배의 본질과 신학적 관점으로 어린이 예배를 조명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 예배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가 예배의 본질인 그리스도 구원사건이 구현되지 않는 예배신학의 부재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논자는 오늘날 한국교회 어린이 예배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방안은 어린이 예배가 예배의 본질과 신학에 근거한 그리스도 구원사건이 효과적으로 구현되는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가 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어린이 예배의 문제점 해결과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어린이 예배에서 그리스도 구원사건의 효과적인 구현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의 방안들은 예배의 본질과 신학을 토대로 제시한 방안으로 예배자인 어린이들이 예배를 기다리게 하고, 기대와 관심을 갖도록 한다.

예배를 형성하는 중요한 세 가지는 예배로 부르시고 예배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과 예배자가 소통하는 방법인 예전성, 예배에 부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회중성이다. 김세광은 예배에 대하여 “예배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언약 백성들이 함께 모여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구속사적 언약의 말씀과 성례전에

절기나, 행사가 있는 주일에는 교사 또는 청소년, 청년부 등 섭외가 가능한 인력을 통해 동역하여 준비할 수 있다.

62) William Hendrix, 『어린이를 위한 신학』,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39-44.

참여함으로써 새 창조 세상(하나님 나라)을 미리 펼쳐 보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 나라에 살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일치와 성숙을 이루는 시간이다.”⁶³⁾라고 말한다.

어린이는 일주일 동안 각자의 삶 속에 있다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로 모인다. 부모님과 또는 친구 그리고 혼자서 발걸음을 교회로 향할 때 제각기 예배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오게 된다. 한국교회는 어린이가 갖는 예배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게임과 오락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기대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예배에 대한 어린이의 관심과 기대가 하나님을 향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회, 목회자, 어린이 부서의 교역자와 교사가 예배의 본질과 신학에 더 충실한 어린이 예배가 되도록 배우고, 기도하고, 연구하는 노력들이 계속되어야 한다.

어린이 예배가 성경에 근거한 예배의 본질과 신학이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사건이 기억되고 예상될 때, 하나님의 계시와 회중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기독교 예배인 그리스도 중심적 어린이 예배가 된다. 더 나아가 어린이에게 맞는 온전한 예배가 될 때 어린이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고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된다. 한국교회마다 어린이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질 때 한국교회의 미래는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만형. 『SS혁신보고서』. 서울: 에듀넥스트, 2011.
- 김상구. “어린이 예배 갱신에 관한 소고”. 『성경과 신학』 63 (2012): 55-88.
- 김성원. “예전의 의미를 전하는 어린이 교육”. 『기독교교육정보』 25 (2010): 71-98.
- 김세광. “예배의 본질의 탐구”. 『신학과 실천』 28 (2011): 29-49.
- _____. “어린이(아동) 세례 연구”. 『신학과 실천』 57 (2017): 7-31.
- 김순환. 『예배와 예술』. 서울: 쿤란출판사, 2014.
- 김종아. “인구절벽 시대의 어린이 목회와 설교”. 『복음과 실천신학』 46 (2018): 62-96.
- 민장배. “어린이 예배 문제점과 대처 방안”. 『복음과 실천신학』 25 (2005): 160-85.
- 박은규. 『21세기의 예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 박해정. 『빛을 따라 새명으로』. 서울: 동연, 2016.

63) 김세광, “예배의 본질의 탐구”, 『신학과 실천』 28 (2011): 29-49.

- 서현덕. “한국 교회 예배갱신을 위한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10.
- 양금희. 『기독교 유아-아동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 양윤정.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 기초한 유치부 예배모형”. 미간행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10.
- 이영란. “어린이를 위한 복수 지능 설교방법”. 『설교한국』 1 (2009): 187-225.
- 주승중. 『은총의 교회력과 설교』.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 조기연. “새해에는 교회력을 지키자”. 『활천』 590 (2003): 48-50.
- 장재영. 『한국교회의 미래 10년』. 서울: SFC출판사, 2019.
- 천영섭. “사례연구를 통한 어린이 주일학교의 예배”. 미간행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11.
- Chapell, Bryan.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김제기 역. 서울: 은성, 1999.
- _____.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 윤석인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 Cilliers, Johan H. 『설교 심포니』. 이승진 역. 서울: CLC, 2014.
- Dent, Harry. 『2018 인구 절벽이 온다』. 권성희 역. 서울: 청림출판사, 2015.
- Hackett, Charles D. & Saliers, Don E. 『예배와 예식 모범』. 김순환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 Hendrix, William. 『어린이를 위한 신학』.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 Hewitt, Beth Edington. 『빨려드는 어린이 설교』. 이은영 역. 서울: 좋은씨앗, 2010.
- Hyde, Daniel R. 『아이들이 공예배에 참석해야 하는가』. 유정희 역. 서울: 개혁된 실천사, 2019.
- Webber, Robert E. 『예배학』. 이승진 역. 서울: CLC, 2011.
- _____. 『예배의 미래를 준비하라』. 양정식 역. 서울: 위십리더, 2015.
- _____. 『예배의 고대와 미래』. 가진수 역. 서울: 위십리더, 2019.
- White, James F. 『하나님의 자기 중심의 선물 성례전』. 김운영 역.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17.
- 이수진, “크리스찬 웹진 소리”, 기독교보, <http://www.cry.or.kr/news/articleView.html?idxno=7408> 2017.6.16. 접속.
- <https://www.nocutnews.co.kr/news/4777681> 2019.12.1. 접속.
- 기독신문 <http://www.kidok.com> 2020.06.01. 접속.

[발표 2]

"한국강단 회복을 위한 강해설교의 모델 - Timothy J. Keller의 설교"



윤연준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Ph. D.)

I. 들어가는 글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한국교회는 비록 기독교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그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였고, 폭발적 부흥을 경험하였다. 특히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은 회심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선포한 후 한국교회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갖게 된 결정적인 시발점이 되었고, 이후 한국교회는 1990년대 초반까지 멈추지 않는 기독교의 성장과 사회의 여러 방면에서 좋은 영향력을 확장해 나아갔다.¹⁾

하지만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며 한국교회는 성장으로부터 급격한 제약을 받게 되고, 급기야 2000년대에 들어서며 급격한 내림세를 겪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한국교회를 이러한 위기상황으로 몰아넣은 것일까? 한국교세의 위기 원인은 표면적으로는 인구의 감소나 시대적 상황, 그리고 교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통한 부작용²⁾ 등으로 찾을 수 있지만, 필자는 이보다 근본적 원인을 한국강단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1970년대부터 불어온 인본주의적 신앙(변영신학³⁾, 새시대설교학⁴⁾, 이머징 처치 등)의 유입과 잘못된 설교의 방식, 그리고 성령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며, 이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현시대에 맞는 건강하고 효과적인 ‘강해설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설교학적 연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명의 모범적 강해설교자(Timothy J. Keller)를 중심으로 연구 및 한국강단을 위한 모범적 강해

1) 황인철, “한국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관한 연구 : 1960년대부터 1980년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 2012), 9-12.

2) 김성건, “고도성장 이후의 한국교회 : 종교 사회학적 고찰”, 『한국기독교와 역사』 38 (2013): 11-14.

3) 최성남, “기복신앙에 대한 성경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 2004), 1.

4) 김경덕, 김창훈, “이머징설교에 대한 비평과 개혁주의적 대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2016), 199-200.

설교를 제시하고자 한다.

팀 켈러에 관한 연구는 해외에서 먼저 시작되었으며, 2021년 1월 기준으로 국내에서도 ‘학술연구정보시스템(RISS)’에 검색된 ‘팀 켈러’에 관한 국내학술 논문 10개와 학위논문 8개가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 팀 켈러에 관한 연구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며, 필자가 주제로 삼은 ‘팀 켈러의 강해설교’에 관한 논문은 아직 국내에선 다루어진 적이 없지만, 최근의 팀 켈러에 관한 연구 동향으로 보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팀 켈러의 강해설교’를 본 논문에서 한국강단의 회복을 위한 설교모델로 제시하는 이유는 현재 한국강단이 국면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환경과 그로 인한 비기독교적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제시하기에 어려운 여러 문제들이 팀 켈러가 그간 겪었던 목회적 상황과 상당부분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강단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바로 ‘팀 켈러의 강해설교’가 갖고 있는 ‘전통적 신학’과 ‘현대적 적용’과 ‘성령에 전적 의지’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한국강단이 현재 겪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을 강해설교로 제시하고, 이러한 강해설교를 가장 전통적이고, 현대적으로 전한 강해설교자의 모범을 팀 켈러로 제시함으로써, 한국강단에 올바른 강해설교의 이해와 정립, 그리고 더 나아가 올바른 강해설교를 통한 현재 한국강단의 위기에 근본적 해결 대안으로 공헌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과 논문의 전체구조

1) 연구방법 및 한계

본 논문은 강해설교의 모범적 설교자들 중 팀 켈러만을 선택하여 연구했으며, 그의 설교를 개혁주의 신학적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이 연구의 주 대상은 팀 켈러의 저서들 중에서 번역되어 국내에 출판된 것들이 주를 이루며, 그의 설교도 포함된다. 단, 이 연구에서 사용한 그의 설교들은 우리말로 번역된 것을 사용했다. 이 연구는 팀 켈러가 저술한 도서들과 설교들을 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의 모든 저작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이 연구의 주제를 다루기에, 충분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2) 논문의 전체구조

본 논문의 전체구조는 1장에서 서론을 말하고, 2장에서 한국강단 회복이라는 주제에 맞추어 한국교회의 이전과 현재 상황을 조사함으로써, 한국교회의 성장 배경과 그로 인해 구축된 분위기를 먼저 파악하려 한다. 그다음 본 논문의 문제 제기인 최근에 급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는 한국강단 위기의 표면적 원인과 근본적 원인

을 구체적으로 다루어 봄으로 현재 한국교회와 강단의 상태를 제시하려 한다. 그다음 이러한 한국강단의 위기의 대안으로 강해설교를 제시하려 한다.

특히 3장에서는 우리가 한국강단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 삼을 건강한 강해설교를 제시하기 이전에 우리가 강해설교로 잘못 알고 있던 설교들을 먼저 알아봄으로 강해설교가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건강한 강해설교의 정의와 그 내용에 대해 제안하려 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러한 건강한 강해설교를 기초로 모범적 강해설교자를 팀 켈러로 제시하여, 논문의 방향을 팀 켈러의 설교 분석으로 가고자 한다. 특별히 팀 켈러가 누구이며 왜 한국강단을 회복시킬 강해설교자의 모범으로 적임자인지를 먼저 소개하고, 곧이어 팀 켈러의 설교를 크게 본문과 적용, 성령이라는 강해설교의 삼요소를 중심으로 특징들을 분석하려 한다. 특히 본문 부분에선 팀 켈러의 구속사적 설교와 전제주의 변증학적 설교의 특징을 성경적 타당성과 개혁주의 신학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조사하려 하고, 이를 토대로 건강한 강해설교의 본문이 갖추어야 할 내용과 방향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려 한다. 또한, 적용 부분에선 성경을 중심으로 현대성을 강조한 ‘리폼드 미셔널 처치’와 성경보다 현대성을 강조한 이머징 처치를 비교 분석하며, 건강한 상황화의 성경적 근거와 지금의 시대에서 상황화가 강해설교에 필요한 이유를 분석하려 한다. 또한, 동일한 적용 부분에서 감각적 설교를 통해 논리에 치중한 지성적 설교와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부터 팀 켈러까지 이어온 정서를 통해 본문을 경험하게 만드는 감각적 설교를 비교 분석하고, 이러한 감각적 설교의 성경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근본적 변화를 독려하는 강해설교의 적용을 조사하려 한다. 그리고 성령 의지의 부분에서는 설교자와 듣는 청중 모두에게 근본적으로 강해설교를 주도하고, 전하는 성령의 역사와 의지의 필요성을 제시한 후, 성령 의지가 경건으로 이어져야 하는 성경적 근거와 필요성을 조사하려 한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렇게 팀 켈러의 설교 특징 중 장점과 약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건강한 강해설교가 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 한다.

그리고 6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강단의 건강한 강해설교의 회복을 위한 설교학적 제안을 통해 본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한국강단 회복을 위한 강해설교의 모델 - Timothy J. Keller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한국강단 성장과 위기

1) 한국강단의 성장

20세기 한국은 열악한 시대적 상황⁵⁾ 속에서 종교를 통한 희망으로 교회를 주목하게 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은 결국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급작스러운 한국교회 성장은 다른 나라의 교회들과는 또 다른 한국교회만의 분위기와 모양새를 갖추어 성장 및 발전을 이루게 하였고, 마침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발현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초기한국교회 부흥의 사상적 배경 속에는 ‘청교도 운동’과 경건주의⁶⁾가 있었다는 사실이다.⁶⁾ 이는 초기 선교사들에 의해 영향을 받은 부분으로, 한국교회의 신앙적 분위기가 ‘경건주의 스킴’에 의해 일상에까지 그 정서가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⁷⁾

2) 위기의 원인

1980년대 기독교 최대인원은 약 1300만 명으로 집계되었지만, 2005년의 기독교 인원은 이단교인 150~250만 명을 포함해서 약 870만 명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20여 년 만에 교세가 절반에 가까운 620~720만 명으로 크게 추락하였다는 참담한 수치이다.⁸⁾ 그리고 2021년 현재 한국교회는 계속되는 교세의 악화 속에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 재해까지 더해져 큰 위기의 상황을 걷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한국교회에 이러한 위기의 원인을 가져다준 것일까? 표면적 원인으론 ‘인구절벽 시대와 교회 이미지의 실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도래’⁹⁾ 등을 통해 찾을 수 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중 언제 교회에 유리한 상황과 환경이 있었는가? 즉, 한국교회에 근본적 문제는 따로 있고, 이러한 표면적 원인이 시대적 상황과 환경에 의해 좀 더 빠르게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 추론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필자는 한국교회의 위기를 가져온 근본적 원인을 한국강단의 ‘a.번영신학¹⁰⁾과 b.본문에 충실하지 못한 설교¹¹⁾와 c.적용이 소홀히 된 설교¹²⁾, 그리고 d.성령이 무시 되는 설교¹³⁾’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의 성장과 유지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한국강단인

5) 김영재, 『한국교회사』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2), 160.

6) Earle. E. Cairns, 임성욱 역, 『세계교회사2』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5), 200.

7) 박종현, “한국교회의 신앙 내연과 그 외연 구조의 상관관계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9), 200.

8) 최윤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39-40.

9) 최윤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40.

10) 신성욱, “그리스도가 빠진 인물 중심의 모범적 삼대지 설교의 문제성과 그 대안으로서의 원포인트 내러티브 강해설교: 누가복음 19-1-10절을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신학』 제53권 (2019), 63-64.

11) 김서택, “강해설교의 종류” 『그말씀』 2000년 2월호, 120.

12) Elizabeth Achtemeier, *Creative Preaching Today* (Nashville: Abingdon, 1980), 72.

13) Jeffrey Crotts, 『성령의 조명을 받는 설교』, 26-43.

데, 최근의 한국강단은 앞에서 제시한 근본적 위기의 원인을 통해 한국교회를 이끌며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2. 위기의 대안: 강해설교

한국강단의 위기는 단순하지 않고,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앞에서도 거론하였듯 분명한 원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을 바탕으로 필자는 한국강단의 위기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건강한 ‘강해설교’를 제안한다. 왜냐하면, 한국강단을 회복시킬 근본적 방법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단으로의 회복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한국강단의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의 강해설교는 제대로 된 내용과 구조를 갖춘 온전한 강해설교여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1) 강해설교가 아닌 것

한국의 많은 설교자는 강해설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¹⁴⁾, 대표적으로 a.주해설교 b.주석 c.성경해석 d.성경공부를 강해설교라고 오해하는 것이다.

(1) 주해설교

생각보다 많은 한국강단의 설교자들은 본문의 한 구절에 목숨을 걸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모든 내용을 해석해 내는 것이 강해설교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¹⁵⁾ 하지만 강해설교의 구조는 반드시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의도¹⁶⁾와 함께 현재를 살아가는 청중을 위한 구체적 적용이 동반되어야 한다.¹⁷⁾ 이는 강해설교가 단순히 주해설교와 같은 본문이 담고 있는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에 목적을 두기보단 강해설교를 들은 청중이 설교를 통해 본문의 메시지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 성령을 통한 변화를 거쳐, 복음이 적용된 삶을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해설교와 강해설교는 전혀 다른 구조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주석

월터 라이펠트(Walter L. Liefeld)는 잘못된 강해설교에 대한 설명에서 ‘순차적으로 한 절씩 주석해 나가는 것은 결국 마지막이 주석으로 끝날 뿐 결코 강해설교

14) 김진숙, “포스트모던 시대의 설교 방법론 연구-개혁주의 관점의 내러티브 강해설교 중심으로” (박사학위 청구논문,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2017), 86

15) Hershanel W. York, 『확신 있는 설교』, 신성욱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0), 59.

16) 해돈 로빈슨, 『강해설교』,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21.

17) 장두만, 『다시 쓰는 강해설교 작성법』 (서울: 요단, 2005), 36-37.

가 될 수 없다'¹⁸⁾라고 지적하였다.

(3) 성경해석

성경해석은 아무리 본문을 깊이 있게 해석하고, 그 범위를 넓힌다 해도, 청중의 실제적 삶의 변화에 도전을 주고 변화를 이끌기는 어렵다.¹⁹⁾ 거기다 성경해석은 강해설교가 반드시 가져야 할 충분한 적용의 구조도 갖기 어렵다.²⁰⁾ 이는 지금을 살아가는 청중이 성경 본문의 이야기와 적절한 균형을 이룸으로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청중의 삶 속에서 살아내도록 만드는 강해설교의 목표²¹⁾와 성경해석이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4) 성경공부

성경공부는 청중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본문을 통한 삶의 변화를 목적²²⁾으로 하 기보단 표면적 본문의 정보와 그것을 습득하려는 성취적 자세를 취함으로써, 성경적 권위를 떠나 설교자의 권위를 탈피한 것에서 강해설교라고 보기 어렵다.

윤정구는 '우리는 살아가며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각성하게 되는데 이때 플롯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플롯들 속에는 믿음이 생기며 이 믿음은 우리의 삶에 내러티브를 형성하여 일정한 프레임을 형성하게 된다'고 말한다.²³⁾ 그러므로 필자는 건강한 강해설교가 지금의 한국강단의 위기를 회복할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3. 강해설교의 올바른 이해

1) 강해설교의 정의

강해설교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가려내고, 그 안에서 핵심 메시지를 통해 지금을 살아가는 청중들에게 알맞은 재해석을 거쳐 성경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용을 취하는 설교라고 할 수 있다.²⁴⁾

18) Walter L. Liefeld, 『신약을 어떻게 강해할 것인가』, 황창기 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87), 32-35.

19) 이우제, "성경적 설교로의 회복과 갱신: 시드니 그레이다누스의 설교학을 중심으로", 기독교신학저널 제14권 (서울: 백석대학교 기독교신학대학원, 2008년 봄호), 113-17.

20) 김창훈, 『설교학 강의안』 (서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05), 118.

21) 장두만, 『다시 쓰는 강해설교 작성법』, 38-44.

22) 류응렬, "개혁주의 강해설교가 나아가야 할 다섯 방향", 『신학지남』 제288호 (2005, 가을호): 230-32.

23) 윤정구, 『진정성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언, 2012), 98.

24) 박은규, 21세기 선교전략, 『신학과 실천』 (1997, 가을호): 14-15.

2) 강해설교의 특징

강해설교는 성경 본문을 기반으로 철저한 주해와 해석을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내고, 하나님의 핵심 주제를 통해 논리적이고 통일된 본문의 구조를 가지며²⁵⁾, 오직 성경의 권위를 앞세워 설교자 자신과 성도 모두에게 구체적 적용을 통해 실제적 변화를 경험하고, 이러한 과정을 성령의 조명에 의지하여 진행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²⁶⁾

3) 강해설교의 필요성

강해설교는 성경적 강해를 기반으로 한 설교이기 때문에 가장 기독교적 설교에 합당하다.²⁷⁾ 또한, 설교의 권위가 설교자가 아닌 성경에 있으므로 근본적 설교의 목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²⁸⁾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에 부합한다.²⁹⁾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청중뿐만 아니라 설교자가 먼저 적용해야 하기에 최근에 문제가 되는 목회자의 윤리, 도덕적 문제로부터의 회복도 이끌 수 있고,³⁰⁾ 청중들에게 적용을 통한 변화의 효과도 크다.³¹⁾ 또한, 이러한 강해설교를 통한 유익이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이루어지기에 한국강단은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를 제대로 회복할 수도 있다.³²⁾ 즉, 한국교회의 위기는 한국강단의 회복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기에 필자는 한국강단에 가장 잘 맞는 강해설교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강단의 회복을 위한 강해설교의 모범적 설교모델로 필자는 Timothy J. Keller의 설교를 추천한다. 왜냐하면, 켈러는 현재 시대에 큰 쟁점이 되는 포스트모던 문화 속에서, 강해설교를 통해 교회의 강단이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가 되었고, 결국 지금 시대에 강해설교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모범적 강해설교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켈러의 강해설교에서 보이는 그의 신학도 한국의 복음주의 신학과 그 결이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에서 그가 한국강단 회복을 위한 강해설교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25) 송인규, 『성경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서울: 한국성경유니온선교회, 2001), 233-35.

26) Phillips Brooks, *The Joy of Preaching*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1895; reprint, 1989), 27.

27) Denis Lane, 『데니스 레인 강해설교』, 김영련 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88.

28) Merrill F. Unger, 『강해설교의 원리』, 최남수 역 (서울: 가브리엘신학연구소, 1985), 30-39.

29) 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1), 272.

30) Phillips Brooks, *The Joy of Preaching*, 27.

31) Richard Allen Bodey, 『설교 해부학』, 권숙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278-80.

32) 고전 2:12-13

4. 모범적 강해설교자 : Timothy J. Keller의 설교

팀 켈러는 최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강해설교자이다. 그가 유명해진 결정적 이유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중심지라고 불리던 뉴욕에서 이론 목회적 성공과 그의 저서를 통해 밝히는 시대 모범적 목회 철학 때문이지만 실제 그러한 목회가 가능할 수 있었던 주요한 원인은 전통적 개혁주의 신학을 기반으로 하는 그의 모범적 강해설교의 역할이 크다.³³⁾

그의 설교는 매우 성경적이고, 전통적이다. 하지만 그의 적용은 매우 감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상황화를 사용하며, 실제적 경건을 촉구한다. 또한, 그는 성령의 조명과 의지를 매우 강조하며, 우상 해체를 통한 근본적 삶의 변화를 추구한다. 이처럼 켈러의 설교는 가장 전통적이고 근본적 강해설교를 지향한다. 하지만 이런 그의 설교는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적 설교가 아닌 선교 지향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그 어떠한 설교보다 효과적이고, 확실한 현 시대적 설교의 방향을 제시한다. 필자는 본 장에서 팀 켈러의 설교가 이루고 있는 본문과 적용과 성령의 각 특징적 내용을 한국강단의 회복에 맞게 설명하고자 한다.

1) 본문

팀 켈러의 강해설교에서 본문을 이끄는 두 가지 특징적 요소는 ‘구속사적 설교’와 ‘변증적 설교’이다. 이 둘은 성경에 근거하며, 개혁주의 신학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즉, 켈러의 강해설교에서 본문은 성경과 전통이 가장 핵심적 요소가 되는 것이다.

(1) 팀 켈러의 구속사적 설교의 특징

켈러는 대부분의 설교에서 내러티브의 구속사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는 견고한 플롯 라인을 취하고 있고³⁴⁾, 이는 본문을 통해 청중이 “죄 아래의 죄”를 보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으로 연결하며,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만이 청중의 삶 속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밝힘과 동시에 본문의 해석학적 주제로 완결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³⁵⁾

(2) 팀 켈러의 변증적 설교의 특징

켈러는 기독교에 대한 포스트모던 시대의 회의주의적 자세와 모습에 대해서

33) 김대혁, “Timothy Keller의 설교를 위한 그리스도 중심적, 삼중적 관점의 해석학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제34권 (2015), 12.

34) 브라이언 채플,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김기제 역 (서울: 은성, 1999), 359-68.

35) 김대혁, “Timothy Keller의 설교를 위한 그리스도 중심적, 삼중적 관점의 해석학 연구”, 34-36.

“검토되지 않은 맹신”이라고 철저히 비판하며,³⁶⁾ 켈러 자신이 전하는 성경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변증함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상이 근본적으로 얼마나 오류투성이인지를 설교로 증명해 나아간다.³⁷⁾

또한, 켈러는 복음이 중심이 된 변증적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의 주심을 입증하며,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동떨어지지 않은 분이심을 변증하였다.³⁸⁾

2) 적용

팀 켈러의 강해설교가 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는 ‘전통성’을 가진 본문뿐만 아니라 ‘현대성’을 가진 탁월한 적용 때문이다. 켈러의 적용은 크게 ‘감각적 설교’와 ‘상황화’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요소들은 본문과 마찬가지로 성경 중심적이고, 전통적 개혁주의 신학을 기초로 하고 있다. 즉, 켈러는 본문과 적용 모두를 시대적 흐름이 아닌 성경적 타당성에 근거한 시대적 합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그의 적용은 언제나 본문을 더욱 잘 전달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며,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적 문화를 따라가기보단 도리어 복음적 문화를 통해 지금의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에 목표를 가지고 있다.

(1) 팀 켈러의 감각적 설교의 특징

켈러는 자신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청중들이 ‘맛보고’, 그들의 심령에 ‘진정한 하나님의 인식’이 자리 잡기를 소원한다.³⁹⁾

특히 켈러에게 ‘감정의 변화’는 대상의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때 발생하는 경향성⁴⁰⁾으로 ‘설교자라면 청중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진정한 감정 (affection)을 경험시키고, 경탄하게 하며,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증거 해야한다’⁴¹⁾고 강조한다.

그래서 켈러는 이러한 설교를 위해 예화나 상상력을 사용했으며, 이러한 설교의 방법은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예수님께서서는 예화 사용에 매우 탁월하셨고, 이를 통해 듣는 청중의 마음을 변화시키신 장면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고 강조하였다.

36) 티모시 켈러, 『살아있는 신』, 권기대 역 (서울: 베가북스, 2010), 21.

37) 티모시 켈러, 『살아있는 신』, 57.

38) 박현신, “포스트 에브리딩 세대의 세계관 변혁을 위한 전제주의 변증적 설교: Timothy Keller 모델을 중심으로”, 『개혁논총』 제29권 (2014, 봄), 372.

39) 서창원, “개혁교회의 경험적 설교의 능력”, 『진리의 깃발』 제57호 (2014): 25.

40) Timothy Keller, *Preaching*, (New York: Viking Books, 2015), 160.

41) Timothy Keller, *Preaching*, 175-77.

물론 예화의 지나친 난입은 문제가 있지만, 만약 적절히 사용한다면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무엇보다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⁴²⁾

(2) 팀 켈러의 상황화의 특징

상황화의 성경적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황화를 통한 성육신 사건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셨고, 우리와 삶을 영위하셨으며, 우리의 언어로 복음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까지 감당하셨다.⁴³⁾

그리고 켈러는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설교자에게만 익숙한 신학 용어 및 교회의 언어를 비기독교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대 문화적 언어로 바꾸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에서 강조하는 개인주의적 성향과 회의주의적 성향, 상대주의적 성향과 이성주의적 성향 등의 사람들이 의심하고 질문하는 여러 물음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답변을 복음적으로 설명하는 방법론에도 상황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⁴⁴⁾

3) 성령의지

설교자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 청중들의 감각에 지속적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케 함으로,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사하며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⁴⁵⁾ 또한,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가장 큰 은혜와 아름다움을 발견하여 복음을 드러내는 방향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1) 켈러의 성령 의지의 특징

요한일서 2장 4절은 설교자의 모습이 하나님을 증명한다고 하였다. 즉, 강단은 “지적체계”를 갖추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실천체계”를 먼저 갖추어야 함이 신앙의 본질적 부분임을 기억해야 한다.⁴⁶⁾

그리고 켈러도 성령을 통한 성경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청중들에게 적용함으로 청중의 삶과 세계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전시킨다.

42) 박완철, 『개혁주의 설교의 원리』 (서울: 합신대학원출판부, 2007), 27.

43) 박두진, “팀켈러(Timothy Keller)의 ‘마음을 움직이는 구속사적 설교’에 대한 목회적 적용” (박사학위청구논문,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18), 97.

44) Timothy Keller, Preaching, 103-14.

45) 김지혁, “Jonathan Edwards의 마음의 감각과 그의 설교학적 미학”, 『복음과 실천신학』 제33권 (2014): 64.

46) 이현웅, “설교, 인격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 『신학과 실천』 Vol.53 (2017): 91-92.

그는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청중들에게 성령에 기초한 복음의 내용과 성화의 근거가 되는 적용을 제안함으로써 하나님과 세상, 자신과 일, 아름다움과 죄에 대한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근심과 수치, 폭력과 인종차별, 죽음과 불의 가난과 돈, 만남과 이별, 자기통제와 경건, 교만과 회개, 무관심과 교회 공동체 등 삶의 구체적인 부분의 이슈(문제)에 대해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고민하였고,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복음과 성령이라고 주장하였다.⁴⁷⁾

5. 팀 켈러 설교의 특징

1) 팀 켈러 설교의 장점

팀 켈러의 설교는 건강한 장점들이 많다. 필자는 이번 장을 통해 켈러의 설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재 강해설교자들이 더욱 발전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1) 본문에 충실한 성경해석에 능력 활용

켈러는 성경 해석학적 틀 위에 적용을 통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제시하는 설교를 하며, 신학적이고, 감성적이며, 복음 중심적이고, 변증적이며, 사회 변혁적인 적용이 강한 설교자이다.⁴⁸⁾

(2) 내러티브 설교를 위한 귀납적 설교구조활용

켈러의 강해설교는 기본적 설교방식이 연역적 구조이지만, 본문이 복음과 연결되는 내러티브 흐름에서는 귀납적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연역적 구조와 귀납적 구조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장점을 한 설교에 담으려 노력하였고, 서로의 약점은 최대한 극복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 그래서 그의 전반적인 설교방식은 비록 연역적 구조를 띠지만, 내용에 따라서는 귀납적 구조를 통해 청중들을 설교 속으로 참여시키고, 공감과 치유와 변화를 독려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⁴⁹⁾

(3) 적절한 적용 활용

켈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전통성을 가진 본문과 현대성을 가진 적용에 있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성과 현대성의 균형은 전 세계가

47) Timothy J. Keller, *Gospel in Life: Grace Changes Everything* (Grand Rapids: Zondervan, 2010), 25-30, 60-61, 65-66, 107-10.

48) 박두진, “팀 켈러의 구속사적 설교의 적용 연구-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15), 68.

49) 김대혁, “Timothy Keller의 설교를 위한 그리스도 중심적, 삼중적 관점의 해석학 연구”, 39-40.

그를 주목하는 가장 큰 특징이 되었다.⁵⁰⁾

즉, 자신이 하고 싶은 설교만 하거나, 청중이 선호하는 설교만 하기보다 하나님의 원하시고, 강해설교가 목표로 하는 본문에 충실한 내용과 그 내용을 통해 성도가 실제적 변화를 겪고, 이 땅에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증인 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설교를 켈러는 강조한다.

(4) 복음으로 문화 변혁적 도전 제시

켈러는 시대 문화를 도구로 삼아 복음을 제시하는 일에 능하였지만. 이것의 진짜 목적은 복음이 문화를 통해 영향력을 확장하길 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설교를 통해 성도들이 복음을 통한 문화 변혁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⁵¹⁾

(5) 선교적 복음증거를 위한 적절한 상황화

켈러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배려하는 한쪽에 치우친 예배를 드리기보다 그들을 품고 선교적인 마음을 품은 예배를 드림으로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부정적으로 의심하는 내용을 변증하고”,⁵²⁾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진정한 진리를 경험시켜 주며, 교회 공동체 속에 아름다운 교제를 함께 참여시킴으로,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고 믿음을 얻는 기회를 제공하려 노력했다.

(6) 성령을 철저히 의지함

켈러는 설교에 있어 본문과 적용보다 성령에 전적인 의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저서들을 통해 자신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엮드려 기도하는 설교자라고 밝히고 있다.⁵³⁾ 즉, 올바른 설교는 설교자가 성령을 철저히 의지할 때 가능한 것이다.

2) 팀 켈러 설교의 약점

팀 켈러는 분명히 장점이 많은 설교자이다. 하지만 그 또한 사람이기에 몇몇 약점과 한계도 존재한다. 그래서 이번 장에선 켈러의 설교 중 약점과 한계를 분별하고, 한국강단을 회복시킬 모범적 강해설교를 위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한다.

50) 안흥기, “적용이 있는 구속사적 설교 연구”, 95.

51) 박두진, “팀 켈러의 구속사적 설교의 적용 연구-로마서, 갈라디아서 중심으로”, 97.

52) 박현신, “포스트 에브리딩 세대의 세계관 변혁을 위한 전제주의 변증적 설교: Timothy Keller 모델을 중심으로”, 『개혁논총』 제29권 (2014, 봄), 358-68.

53) Timothy Keller, 『기도』, 최종훈 역 (서울: 두란노, 2015), 32-34.

(1)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된 설교의 내용

켈러는 기존의 구속사적 설교자들보다 적용을 강조하고, 청중의 분석뿐만 아니라 참여와 전달을 보완함으로 기존의 구속사적 설교가 가지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했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구속사적 설교 대부분의 내용은 여전히 그리스도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2) 성경해석학적 접근의 한계성

켈러는 존 프레임의 ‘본문의 의미가 곧 적용’이라는 해석학적 방법론에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그래서 본문에서 발견한 정보와 적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기 보단, 둘을 혼재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자주 발견된다.⁵⁴⁾ 그리고 이러한 접근방법은 분명 본문의 대략적 이해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깊이 있는 본문의 이해에는 오히려 혼란과 방해를 줄 수 있다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3) 공식화된 적용방법의 한계

켈러는 본문의 의미와 적용을 구속사적 틀 안에서 복음으로 연결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을 시도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화 된 적용의 방식은 설교에 효과적으로 적용을 포함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이에 대한 한계는 획일화된 그만의 규칙 속에 자칫 적용의 방식이 본문의 의도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더 나아가 켈러리즘(Kellerism)으로 빠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⁵⁵⁾

(4) 문맥에 맞는 본문의 역동성을 고려하지 못함

켈러는 본문의 문맥을 파악하고 적용하려는 노력이 보이기는 하나, 그와 동시에 구속사적 측면에 더 많은 우선순위를 두어 성경 본문의 다양한 장르들을 구속사적으로만 획일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각 성경의 본문마다 고유하게 품고 있는 다양한 장르들을 제대로 설교에 반영하지 못한다면, 본문 속 깊은 의도와 그 안에 함축된 의미를 제대로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⁵⁶⁾

(5) 지나친 대중성으로 인한 신학적 의미 약화

54) Daniel M. Doriani, 『적용, 성경과 삶의 통합을 말한다』, 정옥배 역 (서울: 성서유니온, 2009), 35-45.

55) Timothy F. Kauffman, “Getting Sanctification Done: The Primacy of Narrative in Tim Keller’s Exegetical Method”, *The Trinity Review* (May- June, 2013): 1-12.

56) 김대혁, “장르적 성격이 살아나는 설교 방법론 제안: 비탄시를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 신학』 제30권 (2014. 6). 42-88.

켈러는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청중들에게 자신의 설교를 더욱 쉽고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신학적인 단어를 현시대 문화적 언어로 상황화하여 보다 친화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하기로 유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배려가 자칫 청중을 위해 본문을 희생시키거나 의미를 약화할 수 있다는 사실은 늘 고려해야 하고, 강해설교의 근본인 본문이 지닌 도전적 메시지가 깊이 있는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지 못할 수 있다는 약점도 기억해야 한다.⁵⁷⁾

(6) 변증적 설교의 한계

켈러의 변증적 설교가 필요했던 이유는 그가 목회한 환경이 뉴욕의 맨해튼이라는 특수성을 지녔다는 것과 포스트모던의 시대적 성향이 이성과 지성에 집중되어 있다는 부분과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접근할 방법이 변증적 설교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즉, 그의 변증적 설교는 그가 목회하는 환경에는 분명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과 켈러의 성향 자체도 이러한 설교의 방식에 잘 맞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교자들과 켈러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켈러의 변증적 설교도 여전히 지나치게 논리적이고 연역적이며 단순하다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⁵⁸⁾

6. 한국강단회복을 위한 설교학적 제안

팀 켈러의 설교는 비록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지금의 시대가 필요로 하는 많은 강해설교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모범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필자는 이러한 팀 켈러 설교의 특징을 기반으로 한국강단이 지금의 위기에서 회복될 수 있는 설교학적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바른 본문해석

설교자는 본문해석에 있어 자신의 신학이 본문의 특정 메시지에 영향을 주어 본래의 의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⁵⁹⁾ 이는 모든 본문에는 각각의 독특한 장르적 특징이 존재하고, 그 안에 내용도 그리스도의 인격이나 사역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켈러도 자신의 설교에서 복음적 방향으로 본문을 해석하지만, 동시에 신학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밝히고 있다.

2) 핵심 메시지에 집중

57) 박두진, “팀 켈러(Timothy Keller)의 ‘마음을 움직이는 구속사적 설교’에 대한 목회적 적용”, 61-62.

58) 박현신, “포스트에브리딩 세대의 세계관 변혁을 위한 전제주의 변증적 설교: Timothy Keller 모델을 중심으로”, 379.

59) Timothy Keller, *Preaching*, 175-77.

성경의 저자들은 모두가 본문 속에 하나의 핵심 메시지를 남겨두었다. 특별히 이러한 내용은 구약과 신약 모두에 해당하며, 문맥마다 보조 메시지가 한두 개에서 많이는 세 개까지도 들어갈 수 있지만, 핵심 메시지는 어디나 딱 하나만 존재한다.⁶⁰⁾ 이는 본문이 문맥을 통해 분명히 청중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의 메시지에 집중할 때 확실하고 오래도록 청자가 기억할 수 있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⁶¹⁾

3) 본문에 따라 구속사적 관점과 모범적 관점의 균형

‘모든 설교에서 최고의 주제는 예수그리스도이다’⁶²⁾라는 말은 결코 틀릴 수 없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은, 본문의 문맥과 의도가 구속사적 주제에 충족되었을 때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전혀 그러한 내용이나 의도가 없음에도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만 집착한 설교를 한다면 결국 그 설교는 제대로 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⁶³⁾ 그러므로 필자가 한국강단에 제시하고자 하는 설교의 모습은 설교자의 선호에 따라 무조건 하나의 관점에 편협하기보단 구속사적 관점이 지배하지만 본문에 따라 모범적 내용도 무시되지 않고 함께 조화와 균형을 이룬 설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포스트모더니즘에 적합한 변증적 내용

팀 켈러는 그의 변증적 설교를 통해 포스트모던의 중심지라는 뉴욕의 맨해튼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고, 자연스럽게 리더십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강단은 이러한 켈러의 변증적 설교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사회언론과 매체들로 한국강단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증적 설교는 한국강단이 사회 속에서 인식을 바꾸고, 현재의 위기로부터 회복을 이끌 좋은 설교학적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5) 청자에 대한 깊은 이해

청중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마음으로 관심을 가졌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구체

60) 신성욱, “그리스도가 빠진 인물 중심의 모범적 삼대지 설교의 문제성과 그 대안으로서의 원포인트 내러티브 강해설교: 누가복음 19-1-10절을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신학』, 제53권 (2019), 63-64.

61) John R. W. Stott. 『존 스토틀 설교론』, 원광연 역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5), 244.

62) Edmund Clowney, *Preaching Christ in All of Scripture*, (Wheaton: IL.: Crossway Books, 2003), 74-75.

63) 성종현. “구속사적 강해설교에서 기독교 윤리의 위치”.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성경과 신학』 25 (1999): 242

적이고 근본적 분석과 노력이 필요하다.⁶⁴⁾ 물론 이러한 과정은 설교자의 성경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업무 외에도 큰 노력을 요구하기에 만만치 않은 수고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수고가 현재의 침체된 한국강단에 새로운 부흥의 불씨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6) 효과적 커뮤니케이션의 사용

아무리 좋은 성경의 내용도 설교자만 알고 있다면 청중은 바뀔 수 없다.⁶⁵⁾ 그러므로 한국강단의 설교자들은 성경적 내용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교세의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교회에 다시 회복의 바람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보다 성경적이지만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7) 선교적 노력

예배는 비기독교인의 참여를 늘 염두해야 한다. 특히 한 해에 한두 번 정도 의례적으로 치르는 전도 축제가 아니라 매주 들여지는 예배를 통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목회자와 성도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은 목회자가 비기독교인만 배려하는 예배를 드러서도 안 되고, 예배의 본질이 지켜진 선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⁶⁶⁾

8) 성령의지(영성)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다. 그러므로 성령에 의지하지 않은 설교는 결코 제대로 된 설교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도 그러한 설교를 원치 않으신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은 우리를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부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처럼 설교자는 성령과 친밀할 때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합당한 설교를 할 수 있다.

III. 나가는 글

한국은 비록 기독교 문화권은 아니지만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기독교 부흥의 역사가 있는 나라이다. 또한,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은 교회사에서 길이 남을만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한때에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두 번째 나라이기도 했고,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교회들을 보유한 나라이기도 하다. 물론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

64) 권성수, 『성령설교』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421-422.

65) 안종필, 『설교 스피치커뮤니케이션 총론』 (서울: 쿤란, 2007), 14.

66) Timothy Keller, 『센터처치』, 오종향 역 (서울: 두란노, 2018), 166.

은 아니다. 1900년대는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야 했고, 남과 북이 전쟁과 휴전을 해야 했으며, 그로 인한 여러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기독교는 한국에 큰 위로자가 되어주었고, 한국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용기와 도움을 주었다.

특히 빠르게 변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기독교는 한국사회에 여러 긍정적인 도움과 발전을 이끌었고, 그로 인해 한국에서 기독교는 단지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가 아닌 한국에 도움을 주는 선한 무리로 인식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 인식은 곧 한국에서 기독교가 빠르게 부흥되는 원인이 되었고, 1990년대까지 그 부흥의 상승 폭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2000년대에 들어서며 한국의 기독교는 빠르게 침체하여 졌고, 이제는 물러설 곳 없는 위기의 상황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다. 즉, 이전과는 달리 급속도로 추락하는 교세와 시간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 사회로부터의 신뢰성의 문제, 기독교 내부의 끊임이 없는 문제가 현재의 한국교회의 위기를 보여주는 현실이 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이러한 기독교의 위기는 어떠한 원인 때문일까? 표면적 원인으로서는 ‘인구절벽 현상’이나 ‘기독교의 부정적 인식의 문제’, ‘포스트모던 시대의 문제’ 등을 꼽을 수 있지만,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근본적 원인을 ‘한국강단의 잘못된 신학과 설교의 문제’로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각 시대적 상황과 환경에서 그리 좋은 대접이나 환대를 받은 적이 거의 없었고, 언제나 환난과 핍박의 연속이었다는 것과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통해 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복음을 증거 하시고 확장해 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는 순간도 성경에 나와 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멋대로 살아갈 때이다. 그리고 현재 많은 한국의 교회도 성경 속 방탄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렇다면 왜 한국교회는 이렇게까지 무너진 것일까? 그건 한국강단의 책임이 크다. 제대로 설교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제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설교자로서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현재 한국교회의 위기는 곧 한국강단의 위기이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한국강단의 회복이 필요하다. 그리고 필자는 한국강단의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 ‘강해설교’를 추천한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은 이름만 ‘강해설교’가 아닌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바른 ‘강해설교’여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강단은 이전부터 강해설교라는 용어를 쉽게 사용해왔지만, 정확히 강해설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수준이다. 그래서 ‘주해설교’나 ‘주석설교’, ‘성경해석’이나 ‘성경공부’ 등을 설교시간에 하기만 하면 이게 ‘강해설교’라고 오해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설교는 ‘강

해설교'가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설교는 '강해설교'가 가진 하나님의 의도를 청중에게 제대로 전함으로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경험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한국강단을 회복시키기 위해선 진정한 '강해설교의 이해와 적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필자는 모범적 강해설교자를 통해 '강해설교에 관한 다각적 연구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Timothy J. Keller'를 그러한 설교자로 추천하였다.

특별히 필자가 팀 켈러를 모범적 강해설교자로 한국강단의 회복에 좋은 대안적 모델로 추천하는 이유는 우선 그가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과 청교도 교리를 기반으로 한 기독교의 정통성이 한국교회의 신학 정서와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이유가 있고, 또한 포스트모던의 중심지라고 불리는 뉴욕 맨해튼에서 효과적이고, 건강한 목회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독교의 현대성을 증명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그의 성령에 대한 전적인 의지적 자세도 성경의 가르침과 그 결이 매우 유사하기에 필자는 그가 한국강단위기에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켈러의 강해설교는 본론과 적용과 성령이라는 큰 틀을 구조로 삼고 있고, 그 안에는 '본론'을 구성하고 있는 '구속사적 설교'와 '변증적 설교'가 있고, '적용' 부분에는 '감각적 설교'와 '상황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성령 의지'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구조에서 켈러는 '균형'을 강조한다. 즉, 켈러의 강해설교는 '전통성과 현대성의 조화'라고 볼 수 있다.

특별히 켈러는 성경으로부터 설교가 권위를 갖고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경을 가장 잘 증거할 수 있는 설교학적 방법론이 '구속사적 설교'라고 설명한다. '구속사적 설교'는 성경의 중심의도가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의 내러티브적 흐름 속에서 설교하는 방식으로, 켈러는 이러한 '구속사적 설교'를 통해 성경의 문맥과 의도가 성경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과 복음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그는 '변증적 설교'를 통해 포스트모던 시대의 청중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의문'에 교회가 대답함으로 성경의 정당성과 복음을 통한 세계관의 변혁이 그들에게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켈러는 이러한 '구속사적 설교'와 '변증적 설교'를 통해 강해설교의 목표인 말씀을 통한 청중의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고 이를 위해 노력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그는 기존의 구속사적 설교나 변증적 설교자들이 한계라고 지적받아왔던 '적용의 부분'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특별히 '감각적 설교'와 '상황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다만 켈러는 '이머징 처치'와 같은 성경의 본질이 축소되거나 함몰된 적용에 대해서는 비판하였으며, 어디까지나 성경에 입각한 적용을 통해 자신의 설교에 현대성을 확보하고자 애를 썼다.

그래서 그의 적용은 효과적인 현대성을 가졌음에도 언제나 성경과의 균형과 조

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적용은 본론을 보다 돋보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구조적 위치를 취한다.

특별히 켈러의 ‘감각적 설교’는 강해설교의 본질인 말씀을 마음으로 경험시키는 역할을 감당하였는데, 이를 통해 그는 말씀이 단순히 지식에 머물지 않고 정서를 통해 청중의 삶까지 영향을 끼치길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상황화’를 통해서 이러한 설교가 성도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더욱 효과적으로 접근되고 이해될 수 있는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하였다. 즉, 켈러는 ‘적용’이 설교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고, 이를 통해 확실한 목적을 이룬 강해설교자인 것이다.

또한 켈러는 무엇보다 설교의 주관자는 ‘성령’이라고 고백하는 설교자이다. 그는 자신의 설교는 전적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가며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자신의 설교가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한다. 그러므로 그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의 설교 스타일과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전달방식을 기반으로 성령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영적인 은혜를 생각하는 강해설교자이다.

그리고 이런 팀 켈러의 강해설교는 한국강단에 필요한 모범적 설교의 모습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강단은 시대적 환경과 상황 속에 여러 잘못된 신앙과 신학들이 성경의 본질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고, 구도자들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해야 할 말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적용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거기에 예전과 같은 성령에 대한 의지적 모습도 부족하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위기는 분명한 원인에 의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 한국교회에는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만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한국강단이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설교를 통해 한국교회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까지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는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강단의 회복을 위해 팀 켈러의 설교를 연구해본 결과, 결국 강단의 회복은 새로운 대안적 방법에 대한 시도나 도전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해설교로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부디 한국강단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단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냄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뜨거운 부흥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한국교회가 되길 필자는 간절히 바라고, 이후에도 ‘강해설교의 모범적 설교자’와 ‘팀 켈러의 많은 설교’가 보다 다양한 내용과 깊이 있는 연구로 지속되길 바라며, 본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ABSTRACT

한국은 비록 기독교 문화권은 아니지만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기독교 부흥의 역사가 있는 나라이다.

특히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기독교는 한국사회에 여러 긍정적인 도움과 발전을 이끌었고, 그로 인해 한국에서 기독교는 단지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가 아닌 한국에 도움을 주는 선한 무리로 인식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 인식은 곧 한국에서 기독교가 빠르게 부흥되는 원인이 되었고, 1990년대까지 그 부흥의 상승폭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2000년대에 들어서며 한국의 기독교는 빠르게 침체하여 졌고, 이제는 물러설 곳 없는 위기의 상황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다. 즉, 이전과는 달리 급속도로 추락하는 교세와 시간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 사회로부터의 신뢰성의 문제, 기독교 내부의 끊이지 않는 문제가 현재의 한국교회의 위기를 보여주는 현실이 되었다.

그렇다면 왜 한국교회는 이렇게까지 무너진 것일까? 그건 한국강단의 책임이 크다. 제대로 설교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제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설교자로서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현재 한국교회의 위기는 곧 한국강단의 위기이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한국강단의 회복이 필요하다. 그리고 필자는 이런 한국강단의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 '강해설교'를 추천한다.

특별히 강해설교를 보다 올바르게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자는 모범적 강해설교자인 Timothy J. Keller의 설교 연구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켈러의 강해설교는 본론과 적용과 성령이라는 큰 틀을 구조로 삼고 있고, 그 안에는 '본론'을 구성하고 있는 '구속사적 설교'와 '변증적 설교'가 있고, '적용' 부분에는 '감각적 설교'와 '상황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성령 의지'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구조에서 켈러는 '균형'을 강조한다. 즉, 켈러의 강해설교는 '전통성과 현대성의 조화'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팀 켈러의 강해설교는 한국강단에 필요한 모범적 설교의 모습이다. 현재 한국강단은 시대적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러 잘못된 신앙과 신학들이 성경의 본질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고, 구도자들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해야 할 말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적용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거기에 예전과 같은 성령에 대한 의지적 모습도 부족하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위기는 분명한 원인에 의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 한국교회에는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엔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한국강단이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설교를 통해 한국교회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까지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는다.

ABSTRACT

Although Korea does not belong to Christian culture, it has achieved a remarkable Christian revival that is hard to see anywhere in the world.

Especially in the fast-changing modernization, Christianity has led to many positive help and development in Korea, which has made Christianity a friend who helps Korea, not just a foreign religion. And this positive perception had contributed to the rapid revival of Christianity in Korea by the 1990s. However, in the 2000s, the Korean church has quickly stagnated, and now it is in crisis. In other words, the current Korean church faces rapid decline of the total number of Christians unlike before and the internal and external problems of Christianity are worsening day by day, which is the reality.

Then, why has the Korean church got worse? The preachers are largely responsible for it. Because they has not preached properly, and they has not lived properly. In other words, they fail to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as preachers. Therefore, the crisis of the Korean church is due to the one of the preachers. To solve this problem, the restoration of preaching is needed beforehand. And I recommend an expository preaching as a solution.

In this context, I think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it through an exemplary expository preacher, so I recommend Timothy J. Keller as one of them.

Keller's expository preaching has three structures: 'main point', 'application', and 'Holy Spirit'. The main point consists of 'redemptive-historical preaching' and 'apologetic preaching'. The application is made up of 'sensory preaching' and 'contextualization', and finally there is the Holy Spirit. In other words, Keller's expository preaching can be seen as a harmony of 'traditionality' and 'modernity'.

Timothy J. Keller's expository preaching is a good example that preachers should learn. Currently, the Korean church is ruining the essence of the Bible by wrong theology. And most of the churches are

too much conscious of the audiences so they can't speak out something that they must say. Even it is hard for them to apply properly and rely on the Holy Spirit. In this sense, the crisis in the Korean church may be a natural outcome.

But there is still hope. Because we have God. I believe that if the Korean pulpit recovers again, God will not only restore the Korean church but also give grace to the nations and people.

참고문헌

- 김경덕, 김창훈. “이머징설교에 대한 비평과 개혁주의적 대안에 관한 연구”. 「개혁논총」 제39호 (2016.9), 199-214.
- 김대혁. “Timothy Keller의 설교를 위한 그리스도 중심적, 삼중적 관점의 해석학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제34권 (2015. 2). 9-50.
- _____. “장르적 성격이 살아나는 설교 방법론 제언: 비탄시를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신학」제30권 (2014. 6). 42-88.
- 김서택. “강해설교의 종류”. 「그말씀」 2000년 2월호. 120-34.
- 김성건. “고도성장 이후의 한국교회: 종교사회학적 고찰”. 「한국기독교와역사」 제38호 (2013. 3). 5-50.
- 김영재. 『한국교회사』.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2.
- 김지혁. “Jonathan Edwards의 마음의 감각과 그의 설교학적 미학”. 「복음과 실천신학」 제33권 (2014). 42-73.
- 김진숙. “포스트모던 시대의 설교 방법론 연구-개혁주의 관점의 내러티브 강해설교 중심으로”. 신학박사학위논문,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2017.
- 권성수. 『성령설교』.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 로빈슨, 해돈. 『강해설교』.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 류응렬. “개혁주의 강해설교가 나아가야 할 다섯 가지 방향”. 「신학지남」, 제284호 (2005. 9). 201-227.
- 박두진. “팀 켈러(Timothy Keller)의 ‘마음을 움직이는 구속사적 설교’에 대한 목회적 적용”. 박사학위청구논문,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18.
- _____. “팀 켈러의 구속사적 설교의 적용 연구-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15.
- 박은규. “21세기 선교전략”. 「신학과 실천」 (1997, 5).
- 박완철. 『개혁주의 설교의 원리』. 서울: 합신대학원출판부, 2007.

- 박종현. “한국교회의 신앙 내연과 그 외연 구조의 상관관계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9.
- 박현신. “포스트에브리팅 세대의 세계관 변혁을 위한 전제주의 변증적 설교: Timothy Keller 모델을 중심으로”. 「개혁논총」 제29권 (2014, 3). 337-91.
- 서창원. “개혁교회의 경험적 설교의 능력”. 「진리의 깃발」 제57호 (2014). 1-29.
- 성종현. “구속사적 강해설교에서 기독교 윤리의 위치”. 「성경과 신학」 제25호. (1999). 237-74.
- 송인규. 『성경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서울: 한국성경유니온선교회, 2001.
- 신성욱. “그리스도가 빠진 인물 중심의 모범적 삼대지 설교의 문제성과 그 대안으로서의 원포인트 내러티브 강해설교: 누가복음 19-1-10절을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신학」 제53권 (2019). 63-101.
- 안종필. 『설교 스피치커뮤니케이션 총론』. 서울: 쿤란, 2007.
- 안흥기. “적용이 있는 구속사적 설교 연구”. 신학석사학위, 총신대학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08.
- 윤정구. 『진정성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연, 2012.
- 이현웅. “설교, 인격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 「신학과 실천」 Vol.53 (2017. 2). 89-120.
- 장두만. 『다시 쓰는 강해설교 작성법』. 서울: 요단, 2005.
- 최윤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3.
- 최성남. “기복신앙에 대한 성경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 2004.
- 최윤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3.
- 켈러, 티모시. 『살아있는 신』, 권기대 역. 서울: 베가박스, 2010.
- 황인철. “한국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관한 연구 : 1960년대부터 1980년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 2012.
- Achtemeier, Elizabeth. *Creative Preaching Today*. Nashville: Abingdon, 1980.
- Allen Bodey, Richard. 『설교 해부학』. 권숙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 Brooks, Phillips. *The Joy of Preaching*.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1895; reprint, 1989.
- Cairns, Earle. E. 임성옥 역. 『세계교회사2』. 서울: 은성, 1995.
- Clowney, Edmund. *Preaching Christ in All of Scripture*. Wheaton: IL.: Crossway Books, 2003.
- Crotts, Jeffrey. 『성령의 조명을 받는 설교』. 이승진 역. 서울: 성서유니온 선교회, 2013.

- Doriani, Daniel M. 『적용, 성경과 삶의 통합을 말한다』. 정옥배 역. 서울: 성서유니온, 2009.
- John R. W. Stott. 『존 스토티 설교론』. 원광연 역.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5.
- Kauffman, Timothy F. “Getting Sanctification Done: The Primacy of Narrative in Tim Keller’s Exegetical Method”. *The Trinity Review*. May-June, 2013.
- Keller, Timothy. 『기도』. 최종훈 역. 서울: 두란노, 2015.
- _____. 『센터처치』. 오종향 역. 서울: 두란노, 2018.
- _____. *Preaching*. New York: Viking Books, 2015.
- _____. *Gospel in Life: Grace Changes Everything*. Grand Rapids: Zondervan, 2010.
- York, Hershael W. 『확신있는 설교』. 신성욱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0.

